

研究論文

日帝下 大韓光復團의 組織變遷과 그 특질

김희주*

-
- | | |
|----------------|--------------------|
| I. 머리말 | IV. 大韓光復團 組織構成의 特質 |
| II. 大韓光復團의 結成 | V. 맺음말 |
| III. 大韓光復團의 變遷 | |
-

I. 머리말

1910년대 國內 抗日民族運動이 비밀결사의 활동이 대세를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회, 결사와 같은 초보적 인권과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기 일제에 대한 저항은 비밀결사 외의 대안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大韓光復團은 동시대 결성된 비밀결사 중 가장 전투적인 성향을 갖춘 항일단체였다. 의병출신들을 주류로 1913년 慶北 豊基에서 성립된 이 단체는 1915년 光復會로 조직을 발전시킨 후 전국적 지부망을 갖추고 국내 항일운동을 선도하였다. 1918년 조직이 노출된 후에도 잔존단원들은 세력을 보존하여 3.1운동 이후 투쟁을 재기하였다. 또 광복 후에는 생존인사들에 의해 재건되어 식민치하에서 결행한 민족운동의 정신과 이념을 해방공간에 부활시키기도 하였다.

大韓光復團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 단체가 광복회로 확대된 이후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¹⁾ 그것은 이 시기의 투쟁양상과 성과가 가장 뚜렷

* 진주국제대학교 교양과 교수, 한국근대사 전공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15-18년 까지 즉 광복회의 이름으로 활동한 시점만이 주목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다. 여기에 따라 풍기의 초기조직은 광복회의 ‘先行組織’으로 위상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잔존단원들이 결합하여 조직을 재기한 ‘光復團 決死隊’의 성격은 단순히 광복회 인맥과 이념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광복 후 재건의 문제는 학술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채 연구가 이어져 왔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 초기조직에 주목하여 대한광복단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등장하였고²⁾, 이어 同團의 역사적 성격을 재조명하려는 작업도 시도되었다³⁾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유념하여 대한광복단의 조직과 활동이 가지는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정리한바 있다.⁴⁾ 그리고 團의 결성과 성장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병행하였다.⁵⁾ 여기에서는 기왕에 발표한 논지를 바탕으로 대한광복단의 조직과 특질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本稿는 대한광복단의 조직구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다.

첫째, 大韓光復團의 항일민족운동이 조직과 활동의 변천이라는 일관된 흐름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단의 변천을 초기조직의 결성과 확대조직의 성장, 그리고 침체를 거쳐 후계조직이 재기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그리하여 이 단체가 1913년 결성 후 단계적 부침을 겪으면서도 1920년까지 그 생명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위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단통치의 극성기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동단이 그와 같이 끈질긴 투쟁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 규명이 요구될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조직과 확대조직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기 조직이 지녔던

-
- 1)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 『韓國學論叢』 제5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1982); 「大韓光復會 研究」, 『韓國史研究』 42 (1983).
 - 2) 金昌洙, 「大韓光復團의 成立과 活動」, 『鶴山金廷學博士頌壽紀念 韓國史學論叢』(1999).
 - 3) 金昌洙, 「大韓光復團의 結成과 초기 活動」; 劉準基, 「大韓光復團과 大韓光復會」; 朴成壽, 「大韓光復團의 역사적 위상」, 『대한광복단의 역사적 재조명』 대한광복단 학술회의, (2002.9.12)
 - 4) 金希柱, 「大韓光復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5) 拙稿, 「素夢 蔡基中の 抗日獨立運動」, 『東國史學』 제38집 (2002); 「日帝下 蔡基中の 抗日鬪爭과 그 性格」, 『순국선열 소몽채기중의사 학술회의 발표문』 상주문회회관 (2003. 7)

특질과 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대한광복단의 투쟁기반과 역량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미 알려진 투쟁 사례들과 그 성과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였다. 이상의 과정으로 비밀결사 대한광복단의 실체와 본질, 나아가 그들이 추진하였던 항일민족운동의 의미까지도 재해석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大韓光復團의 結成

大韓光復團은 1913년 慶尙北道 豊基에서 蔡基中の 주도하에 10여명의 단원들로 결성되었다. 풍기는 鄭鑑錄에 등장하는 十勝之地의 하나로 한말의 격동속에 팔도 이주민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인구 이동이 잦아 의병 지사들이 암약하기 유리하였다는 사실이 대한광복단이 조직된 지리적 배경으로 일찍부터 지적되었다.⁶⁾

결성을 주도한 채기중은 慶北 咸昌(尙州) 출신으로 1906년 풍기로 이거한 인물이었다. 고향에서 자영농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던 그는 을사늑약으로 망국의 상황이 가시화되자 가족을 이끌고 별다른 연고가 없는 풍기로 이주하였다. 그의 이거는 대한광복단 결성을 위한 근거지 확보 외에 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어 항일운동에 투신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이동을 해석된다.⁷⁾

대한광복단의 조직경위와 최초구성원에 관해서는 同團의 결성에 직접 참여하였던 韓焄이 남긴 아래의 기록에 적시되어 있다.

‘公은 家産을 放賣하여 數千圓을 휴대하고 대구의 李康熙와 公의 再宗인 梁汝行과 북만주의 長白縣으로 들어가서 백방으로 독립운동을 하였고 皇城新聞사 장인 張志淵과 서로 연락하여 南滿을 왕래하며 安孝濟 孟甫淳公과 梁基鐸, 李秉玉, 李世榮, 李象義, 金佐鎭등과 함께 全滿運動을 망라하던 중 국내에 연락

6)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 研究』(知識産業社, 1989), 262쪽.

7) 金希柱, 「素夢 蔡基中の 抗日獨立運動」, 『東國史學』 第8 卷(2002), 135~136 쪽

할 일이 있어 도보로 北鮮을 통과하여 상주 선산을 거쳐 군위에 이르러 宋焘 白南公을 방문하여 時事를 논평한 뒤 斗麻로 돌아왔습니다. 한달 뒤 金鳳樵, 鄭星山 두분이 내방하여 時局이 잘못됨을 논하면서 ‘요즈음 豊基에 의기충천한 文士가 있는데 그는 素夢公 蔡基中으로 生産作業을 불구하고 三家의 財産을 합쳐 秘密革命機關을 豊基에 설치하고 암암리에 全國義兵의 殘黨將校 및 冒險勇士를 불러모아 大事를 도모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 공이 가서 상의하여 지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공이 기쁘게 따라가 豊基의 蔡公과 더불어 하루저녁 간담을 토하고 드디어 生死를 함께 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婚姻을 약속하고 草隸日을 결정한 뒤 돌아왔습니다. 즉 公의 季子의 초례날짜는 癸丑年 二月十五日이었습니다.....後略.....⁸⁾

위의 기록은 만주에서 활동하다 1913년 정월 귀국하여 迎日君 斗麻里에 은거하던 梁濟安이 金鳳樵, 鄭星山 양인의 권유로 풍기에서 채기중을 만나 그가 결성한 비밀결사에 가입하기까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김봉초와 정성산은 1893년 양제안이 許雲樵 趙百熙 등과 鎭川 龍沼洞에서 88 명의 병력으로 民堡軍을 조직한 이른바 ‘鎭川起軍’에 참여하여 양제안과 인연을 맺은 의병출신들이었다. 이중 김봉초는 1906년 洪州의 閔宗植의진이 양제안을 초빙하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권유 서한을 보냈을 정도로 碧壽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었다.⁹⁾

이들은 민중식 의진이 충주성을 점령할 당시 李世榮, 朴東菴, 金樂溪 등과 함께 참전하였으며 양제안이 민중식 부대를 떠나 1908년 白山 禹在龍과 大邱 桐華寺에 포진할 때 까지 행동을 같이 하였다. 이듬해 우재룡 부대가 해산되고 양제안이 渡滿하자 국내에서 은거하였는데 그 과정에 풍기의 채기중과 접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⁰⁾

그런데 위의 ‘實記’를 보면 이들이 1913년 정월 양제안을 만난 자리에서 이미 채기중이라는 인물이 生業을 전폐하고 풍기에 革命機關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알

8) 梁漢緯, 『梁碧壽公濟安實記』, 필사본.

9) 梁漢緯, 『梁碧壽公濟安實記』, 필사본.

10) 『高等警察要史』의 ‘光復會事件’ 관련자 명단을 보면 풍기군 읍내리 출신으로 鄭性山이라는 인물이 나온다.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934. 183 쪽 아마도 위의 鄭星山과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정성산이 풍기 출신이라면 양제안이 渡滿한 후 고향에 은거하였을 것이고 1906년 풍기로 移居한 蔡基中과는 이 무렵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리고 있다. 그렇다면 大韓光復團 혹은 그 母體가 되는 비밀결사는 적어도 전체인 1912년 말경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全國義兵의 殘黨將校’인 이들 역시 1912년 채기중이 결성한 조직에 가입한 상태였고 양제안이 귀국하자 그를 영입하기 위해 채기중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大韓光復團의 人的構成이 1912년 말경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양제안의 季子 梁漢星이 1913년 2월 채기중의 딸과 혼사를 맺는 과정을 묘사한 아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13년 2월 30일 며슴 한 사람에게 두필의 패물을 지워 配行과 남자가 걸어서 풍기읍에 이르렀다. 첫 주점에서 素夢이 사는 마을을 물으니 과연 멀지 않았다. “慶州醮行이 왔다”고 전하니 돌연 동지 10여명이 웃으며 하는 말이 “십오일이나 기다렸습니다” 하였다. 다음날 醮禮를 마치고 관례에 따라 하룻밤을 지나고 돌아오려 하니 동지 수십명이 모두 옷자락을 잡고 만류하기에 풍기를 시찰하고 5,6일이 지난뒤에 돌아왔다. 초행때의 配行은 공의 둘째아들 漢緯였는데 소몽이 이르기를 “大事가 앞에 닦혔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운수하는 國事를 도와주기 바라오”라 하니 어찌 유예할 수 있으랴. 공의 次子가 불시에 率家하여 풍기로 이사하고 이주한지 몇 달이 못 되어 “공의 집안은 본래부터 才名이 있는 소치로 憲兵分遣 및 파견소로부터 주의하여 보는 협의가 있다.”하여 공의 同志年老들은 한위를 불러 面書記로 들어갈 것을 권하였다. 한위가 “志士를 욕되게 하는 바니 할 수 없다” 하고 사양하자 동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다 모였는데 어찌 志概를 생각하다가 국사를 그릇되게 할 수 있겠소 만약 저희들이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게 되면 대사는 끝나는 것이오 부득불 面吏로 취임하여 저들의 注視를 피하는 것이 좋겠소”라 하였다.’¹¹⁾

위의 내용은 동생 漢星의 초행길에 配行한 梁漢緯에게 蔡基中과 그의 동지들이 대사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豐基에 남아 조직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양한위는 풍기 전역을 돌며 정세를 파악한 후 정착하게 되었고 동지들의 참가

11) 梁漢緯, 「梁碧壽公濟安實記」 필사본

요청으로 大韓光復團에 가입하였다. 다만 양계안 父子가 일찍부터 일제의 감시를 받았기에 노출을 피하기 위해 面吏로 위장하여 신분을 은폐할 것을 권고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위 기록을 보면 양한위를 포섭하여 조직에 가담시키고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 채기중과 함께 그의 同志들이 일관되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들 ‘同志十餘人’은 양한위 일행의 초행길을 영접하였을 뿐 아니라 풍기에 체류할 것을 권하는 한편, 장래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여 암약할 것을 제안하는 등 비밀조직으로서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채기중이 1912년 대한광복단의 조직결성에 착수하여 ‘全國義兵將校와 冒險勇士들로 단원구성을 시도하였다면 이들 ‘同志十餘人’은 그 과정에서 참여한 의병계열의 지사들로 생각된다.¹²⁾ 즉 대한광복단의 창설단원인 庾昌淳, 柳璋烈韓君, 姜順必, 金炳烈, 金相玉, 鄭雲洪, 鄭鎮華 등의 인물들이 이에 속한다.¹³⁾ 이들은 거의 향토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유입된 인사들로 일제침략과 더불어 豊基로 이주한 인물들이었다.¹⁴⁾ 또한 김상옥과 같이 상업에 종사하다 참여한 경우도 있다. 김상옥은 그의 나이 23세 되던 1912년 5월부터 9월까지 三南을 떠돌며 賣藥行商에 종사하였다. 그는 이때의 수입을 바탕으로 후일 서울에서 永德鐵物商會라는 철물점을 자영하게 된다.¹⁵⁾ 김상옥이 慶尙, 忠淸, 全羅 3도를 떠도던 1912년 5월부터 9월은 채기중이 풍기에서 대한광복단의 결성에 착수하는 시점으로 그의 입단은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¹⁶⁾

12) 權大雄도 이들 ‘同志十餘人’을 의병 참전 경력이 있는 단원들로 보았다 그는 이들을 豊基面 西部里와 東部里에 우거한 인물들로 파악하였다. 권대웅, 『1910년대 경상도지방의 독립운동단체 연구』, 영남대학교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47 쪽

13) 光復團中央總本部, 『光復團略史』 (1945), 2쪽.

14) 趙東杰,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지식산업사 1989), 262 쪽

15) 金相玉烈士紀念協會, 『김상옥열사투쟁사』 (1949), 10-11쪽.

16) 金相玉은 동지이면서 후일 자신과 사돈관계를 맺은 韓焄의 인도에 따라 大韓光復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훈이 김상옥의 養子이자 뒤에 자신의 사위가 되는 金泰運에게 전언한 바에 따르면 어느 날 대전을 지나다 賣藥行商을 하던 김상옥을 만났는데 그가 약품선전과 예수교전도를 끝낸 뒤 모인 군중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것에 감명받아 동지로 받아들였다 한다. 특히 大韓光復團은 장차 곡물상이나 유랑상인을 통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자금을 증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김상옥이 더욱 필요하였다 한다. 劉準基, 『1910년대 기독교인의 抗日獨立運動의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大韓光復團은 1912년 말 豊基에서 이미 기초조직이 완성되었고 인적토대도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겠다. 이들 최초구성원들은 참전 경력이 확인되는 의병출신들(庾昌順, 柳璋烈, 姜順必, 韓焄)과 의병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망국의 현실을 경험하고 독립운동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던 지사적 인물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상태에서 풍기로 집결하였으며 채기중은 이들을 규합해 抗日結社를 조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여건보다는 그들이 지닌 강렬한 전투지향성에 맞춰 구성원들의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초단원 중 유창순, 강순필은 민중식의진과 이강년 의진에서 각기 의병항쟁을 경험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1917년 11월 채기중이 漆谷에서 친일지주 장승원을 처단할 당시 행동대원으로 직접 가담했을 만큼 투쟁성향이 강했다.¹⁷⁾ 또 단원 중 유일한 생존자로 해방을 맞은 한훈은 이러한 경력면에서 가장 뚜렷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충주의진 출신의 한훈은 1906년 羅喆의 오적암살단에 관여하였으며 이듬해에는 稷山의 친일군수를 암살하고 만주로 망명하는 등 의열투쟁의 경험을 갖춘 인물이었다.¹⁸⁾ 그는 1910년 귀국하여 大韓獨立義軍府를 거쳐 풍기의 초기조직에 가입하였다. 이후 한훈은 1916년 보성, 별교에서의 무장투쟁, 1920년 미의원단 방한의거 그리고 광복 후 재건에 이르기까지 요소에서 대한광복단과 명운을 같이 하였다.¹⁹⁾ 유장렬 역시 독립의군부에서 활약한 사실로 보아 의병출신임이 분명하다. 그는 1916년 한훈이 별교에서 徐道鉉을 처단하고 그의 인척 徐仁善을 납치하여 군자금을 수령할 당시 행동을 같이한 동지였다.²⁰⁾ 그리고 김상옥은 주지하다시피 대한광복단과 義烈團에서의 활동으로 항일운동사에 족적을 남긴 열사이다.²¹⁾ 이외의 단원들도 성향과 행동노선에서 이

一樣相 ~ 金相玉의 抗日義烈鬪爭~, 『論文集』 第10輯 總神大學校(1991), 109쪽.

17)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180쪽

18) 韓焄, 『大韓光復團 團長 履歷書』, 이 이력서는 韓焄이 해방 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여기의 대한광복단은 1945년 재건된 조직을 의미한다.

19) 金昌洙, 「大韓光復團의 成立과 活動」, 앞의 책, 237~234쪽. 張錫興,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노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집 (2001).

20) 東亞日報, 1922. 11. 12.

21) 金昌洙, 「김상옥의 종로서 및 효제동의거」, 『新東亞』 (1969년 7월호); 『역사와 민족』 (삼문 1994.) 재수록.

劉準基, 「1910년대 기독교인의 抗日獨立運動의 一樣相」, 『論文集』 第0輯 總神大學校(1991).

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大韓光復團의 초기구성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같은 전투지향성은 동시대에 조직된 여타의 결사들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측면이라 하겠다. 채기중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에 풍기의 환경적 이점을 더해 國權恢復運動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단원들을 규합하였다. 그는 비밀결사를 형태로 한 무장투쟁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의병계열의 지사집단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광복단의 초기조직에는 종교나 학교, 혹은 지역적 연결고리와 같은 外皮를 발견할 수 없다. 뚜렷한 외피가 없다는 구조적인 특성과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성격은 상대적으로 이 단체가 日帝의 감시와 주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조직기반이 형성되고 동지규합이 이루어졌다 해도 이들 구성원만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蔡基中이 1912년 모집한 단원의 대부분이 韓末義兵의 잔존세력으로 국내에서 뚜렷한 생활근거지나 기반을 상실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인 처지가 불우했던 이들 단원들의 역량만으로 行動方略을 결정하고 투쟁목표를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1913년 초에 이루어진 梁濟安 父子의 영입은 단원구성에 나타난 약점을 극복하고 단의 체질을 강화시켜 본격적인 對日抗爭을 준비하기 위한 整地작업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양제안은 忠北 沃川의 양반가 출신으로 1883년의 鎭川起軍을 시작으로 1896년의 金山義陳, 1905년 閔宗植의 公州義鎭, 1907년 鄭煥直의 山南義兵에 이르기까지 한말의 주요한 의병투쟁에 빠지지 않고 투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참전경험으로 의병계열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웠으며 兵術에도 밝았다.²²⁾ 양제안은 무력투쟁뿐 아니라 國債報償運動이 일어났을 때 斷煙同盟을 결성하고 의연금을 모집하는 한편 浦項의 斗麻里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구국운동에 종사하는 등 애국계몽운동의 경력도 갖춘 인물이었다. 또한 梁基鐸, 李世榮, 李秉玉, 李象義 등

22) 梁濟安은 일찍부터 戰史와 兵法에 밝아 1866년 丙寅洋擾가 일어났을 때 16세의 나이로 勝戰의 방략을 적은 檄文을 만들어 보급한 적이 있다 한다. 1893년 忠北 鎭川에서 民保軍을 조직하였을 때는 직접 활과 갈, 총탄을 제조하였고 병력을 편성하여 이들을 조련하였다(『梁碧壽公濟安實記』).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지사들과의 교류가 깊었고 해외독립운동의 정세에도 밝아 만주기지와의 관계가 중요했던 대한광복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²³⁾

실제로 梁濟安은 가입 후 다시 만주로 이동하였으며 풍기에는 次男 梁漢緯가 남아 부친과의 연락하에 조직정비와 단원영입작업을 수행하였다. 『梁碧壽實記』에는 대한광복단에 참여한 후 만주와 풍기에서 이들父子가 행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公은 滿洲에서 聲名이 멀리 퍼지게 되었다. 하루는 맑은 표정을 한 소년이 찾아와 울면서 고하기를 “國事를 復權할 계책이 어찌해야 나오겠습니까? 선생님의 고명하신 知見으로 장래를 善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였다. 公이 말하기를 “豊基에 蔡基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참된 義士요 英雄이다. 지금 현인을 부르고 의사를 수납하고 있으니 그대는 마땅히 가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소”라 하였다. 그리하여 李福雨 朴相鎭등이 만주로부터 와서 豊基에 있는 公의 次子 漢緯公을 방문하여 함께 蔡基中公과 회합하여 大事를 정하였다.’²⁴⁾

위 기록에 따르면 梁濟安은 만주에서 뜻을 가진 인물들과 접촉한 후 이들에게 풍기의 비밀결사를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梁漢緯는 풍기에서 이들 인물들을 채기중에 연결시키는 한편 대한광복단으로 입단을 유도하였다. 즉 梁濟安父子가 국내외에서 유기적인 연락관계를 취하며 단원영입과 단세확장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광복단의 초기조직이 정립되는 단계에서 이들 부자의 역할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상의 정황들을 검토해 볼 때 大韓光復團은 1912년부터 1913년에 걸쳐 조직의 結成이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 내려야 할 것이다. 蔡基中の 주도하에 의병잔존 세력을 중심으로 한 기초조직은 1912년 말 풍기에서 이미 결성이 완료되었다. 이들 인사들은 국권회복의 의지와 실전경험까지 갖춘 鬪爭指向의 성격의 인물들이었지만 현실에서의 사회적 기반을 상실한 상태였고 교육정도도 舊學 출신들이 많

23) 梁漢緯, 『梁碧壽公濟安實記』 필사본

24) 梁漢緯, 『梁碧壽公濟安實記』 필사본

았다. 여기에 1913년 초 양제안 부자와 같이 의병경력 뿐 아니라 계몽운동의 역량까지 겸비하고 만주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춘 인물들이 합류함으로써 대한광복단은 보다 중량감 있는 인적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단원보강을 통한 세력확장은 1915년 대한광복단의 조직이 대한광복회로 확대, 개편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III. 大韓光復團의 組織變遷

1. 확대조직의 성립과 발전

채기중과 1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대한광복단 초기조직은 이후 구성원의 범위를 계속 확장시키며 세력을 증강하였다. 양제안 부자의 영입으로 시작된 이러한 추세는 황상규, 김대지, 이각 등 후일 의열단의 핵심단원으로 활동한 밀양출신 청년지식인 집단의 영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15년 박상진이 정운일, 김대열 등 조선국권회복단의 강경파들을 이끌고 합류함에 따라 정점을 이루게 된다. 조선국권회복단의 활동노선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동단을 이탈 대한광복단에 가담함으로써 그 확대조직인 대한광복회가 탄생한 것이었다.

대한광복단의 결성목표는 대한광복회의 운동전략과 행동노선으로 전승되어 1910년대 국내항일 투쟁의 주도적인 운동체계로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박상진 세력의 합류는 대한광복단의 인적재편과 투쟁역량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그 경위와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朝鮮國權恢復團은 1913년 1월 15일 慶北 達城郡 大明洞 安逸庵이라는 암자에서 대구지역 청년 결사인 達城靑陸會와 講遊園懇親會員들이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종래 조선국권회복단(이하 국권회복단)의 결성시기는 ‘高等警察要史’의 기록에 따라 1915년 정월 15일로 보았다. 즉 달성친목회 회원 尹昌基가 안일암에서 요양중인 것을 계기로 같은 회원인 대구의 徐相日, 李始榮, 徐丙龍, 洪宙一 등이 시회를 가 장하여 회합한 후 비밀조직을 결성하였다는 것이다.²⁵⁾

25) 慶尙北道 鏡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183쪽.

그러나 1919년 6월 단체의 전모가 발각되고 참여인사 대부분이 체포된 후 그들의 신문조서를 바탕으로 한 국권회복단 자료집이 발간되었는데²⁶⁾, 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同團의 결성은 1915년 이전인 것으로 나타난다.²⁷⁾

실제로 단원들의 증언을 보면 이들이 안일암에서 詩會를 가장하여 최초의 모임을 가진 날짜가 1913년 정월 15일로 되어있다. 결성에서부터 3.1운동이후까지 단의 활동을 주도했던 서상일도 윤창기를 찾아 안일암을 방문한 날짜를 1913년 정월 보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²⁸⁾ 그와 동행했던 홍주일, 윤창기, 정운일, 서병룡 등도 1913년 정월의 안일암 집회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다만 모임의 성격에 대해 이들의 증언이 각각 엇갈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상일, 홍주일, 서병룡은 친목도모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²⁹⁾ 반면 윤창기는 모임에서 조선의 국권회복을 서약하였으며 尹相泰를 두령으로 선출하였고 비밀유지를 맹세하였다는 등 항일결사로서 국권회복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다.³⁰⁾ 또한 정운일, 이영국과 같이 참여 사실 자체를 부인한 인물도 있었다³¹⁾

어쨌든 위의 인물들은 증언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일관되게 안일암의 모임이 1913년 정월 보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1919년 6월 대구지방법원은 ‘비밀결사인 達城親睦會 및 講遊園會員, 서상일, 이시영, 박영모, 홍주일, 서병룡, 정순영, 윤창기 등이 大正2년(1913) 음력 정월 15일 달성군 수성면 대명동 안일암에서 국권회복에 관한 모의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서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소사실을 발표하였던 것이다.³²⁾

그러나 위의 조서에는 부분적으로 안일암 집회가 1915년 정월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본인들은 참가사실을 부인하지만 金在烈과 朴永模의 심문 기록에는 국권회복단의 결성일이 1915년 정월 보름으로 제시되어있다. 尹相泰와 白龍星은 집회 참석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그 날짜는 대정4년(1915) 정월 보름으

26)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7,8,9, (朝鮮國權恢復團 I, II, III) (이하 『資料集』).

27) 강영심, 「조선국권회복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 (1990), 145쪽

28) 『資料集』 7, 124쪽

29) 『資料集』 7, 24쪽, 30쪽, 40쪽

30) 『資料集』 7, 50쪽

31) 『資料集』 7, 40쪽, 59쪽.

32) 『資料集』 7, 68~70쪽.

로 기억하였다.³³⁾

이는 1913년 이후 매년 정월에 모임을 가졌던 이들이 1919년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으킨 부분적인 진술 착오로 보인다. 대부분의 증언내용을 검토할 때 달성친목회와 강유원간친회 소속의 청년지사들이 안일암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한 최초의 날짜는 1913년 1월 15일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또 1915년 까지 매년 정월 보름 집회를 열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왔던 것이다.

조선국권회복단의 구성원들은 대구, 달성과 경남 남서부출신의 중산층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漢學의 기반위에 일본유학을 통한 新학문의 이수경험이 있으며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의병참전의 경험자들이 많았던 대한광복단과는 달리 이들 세력은 애국계몽운동계열의 실력양성론이나 준비론적인 운동방략에 보다 경도된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결성 당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조선국권회복단의 결성서약서를 보면 제1항에 조선의 국권회복을 이루겠다 결의표명만이 나타날 뿐 구체적인 행동방침은 발견할 수 없다.³⁴⁾ 매년 정월 보름 檀君의 位牌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重光’의 논리를 통해 ‘光復’의 의지를 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타도대상과 실천방략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비밀결사의 특성 상 조직의 내부결속과 보안유지에 보다 비중을 두어 단을 운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금의 모집과정에서 富豪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수합 대신 단원들의 재력을 이용한 지원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도 단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식민통치가 가장 가혹했던 1910년대 초의 환경적 제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같은 시기 대한광복단이 전개한 금광잡입, 마차습격 등 공격적인 투쟁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국권회복단의 활동은 구성원의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20년 조직이 발각되고 단원 대부분이 체포된 후, 취조과정에서 조선독립의 전망과 견해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이들의 답변에서 확인된다.

總領 尹相泰는 국권회복의 목적과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3) 『資料集』 7, 11~13쪽.

34) 『資料集』 7, 95쪽.

‘수천년 이래 계속된 한국이 併呑으로 멸망했으니 우리들 조선민족으로서는 유감천만인 것은 틀림없지만 오늘날의 時勢를 볼 때 조선의 독립을 기도해도 도저히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의 盛衰興亡이 무상하므로 한국이라 하더라도 다시 독립할 기회가 없다고 한정할 수 없으니 일단 멸망한 나라가 부활하는 것은 天理自然의 운수다. 그 운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믿고 있다.’³⁵⁾

즉 독립의 희망과 욕구는 가지고 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쟁취하기는 지금의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성쇠는 무상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느 시점에 와서 독립은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 또한 시운에 달려있다 하여 운명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운상대는 현재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獨立을 기도할 생각이 없다는 말로 진술을 끝맺고 있다.

단원 徐相權도 국권회복의 희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 우리가 조선독립을 꾀하는 것은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가령 독립의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舊한국시대와 같은 독립으로서는 諸外國으로부터 간섭을 받을 뿐이며 동양에서 세계각국의 爭端이 되어 동양평화를 해칠 뿐 조선인인 우리에게도 독립이 하등의 행복을 줄 수 없고 생명, 재산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 나는 오늘날의 總督政治를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독립은 희망하지 않는다.’³⁶⁾

라 하여 保護國化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조선의 독립을 희망해 왔지만 오늘의 세태를 보면 도저히 독립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여 그런 계획도 못하였다.’는 김기성의 진술에서도 이들의 현실인식을 읽을 수 있다.³⁷⁾ 그리고 국권회복단의 실질적 리더였던 서상일의 경우, 1920년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自治論에 관심을 보이다가 30년대에 이르러 자치론

35) 『資料集』 7, 136쪽

36) 『資料集』 7, 99쪽

37) 『資料集』 7, 112쪽

자로 완전히 변질하게 된다.³⁸⁾

초기 구성원들의 온건노선은 이후 朴尙鎭, 金在烈, 鄭雲日 등 전투적 성향을 가진 강경세력들이 계속 입단함에 따라 단내의 노선갈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활동자금의 모집방식을 두고 특히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즉 중산층 이상으로 구성된 국권회복단의 주도인사들은 주로 자신들의 자산을 각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 필요한 액수를 충당할 수 없었기에 대구를 위시한 국내의 부호들에게 일정액을 요구하여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지도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이들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1915년 박상진은 만주에서 권총 10 자루를 반입하여 최준명에게 보관시키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崔俊明이 대구의 부호 徐昌圭를 만나 활동자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두 달뒤인 6월 최준명은 정운일, 김재열과 함께 권총을 소지하고 다시 서창규를 만나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게 된다.³⁹⁾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국권회복단의 노선과 활동에 불만을 품은 강경세력들이 단을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중심인물이었던 박상진이 정운일, 김재열 등과 함께 풍기의 대한광복단에 합류하여 그 확대조직인 大韓光復會를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한 것이다.

박상진이 대한광복단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던 채기중과의 만남은 1913년말경 이루어진 것 같다. 『光復團略史』에는 박상진이 남만주에서 양제안의 소개로 채기중과 회합한 것으로 나와 있다.⁴⁰⁾ 그러나 양한위의 기록에는 만주에서 양제안으로부터 채기중의 인물됨을 전해들은 박상진이 李福雨, 梁漢緯와 함께 풍기에 와서 그를 만나 대사를 도모하였다는 대목이 있어 이들의 만남이 풍기에서 이루어 졌을

38) 朴贊勝, 「일제하의 자치운동과 그 성격」, 『역사와 현실』 2(1989), 169~210 쪽

39) 權大雄, 「1910년대 경상도지방의 독립운동단체연구」 146쪽, 姜英心은 徐昌圭가 達城綢陸會에 가입하여 다액의 희비를 기부한 바 있고 해산 시에도 친목회 소유의 서적을 매입하는 등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을 들어 모집대상이 다른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였다. (姜英心, 앞의 글 151 쪽) 만약 그렇다면 이는 같은 대구부호로서 2차 모금 대상이었던 徐佑淳의 오인일 수 있다. 그러나 서창규가 국권회복단에 가입한 것이 3.1운동 이후이며 그가 동단의 지도부 서상일, 윤상태 등과 긴밀한 관계로 단내 강경파들의 자금요구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資料集』 7, 63~65 쪽.)

40) 光復團中央總本部, 『光復團略史』 (1946), 2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⁴¹⁾ 어쨌든 박상진은 1913년 이미 채기중과의 접촉을 통해 대한광복단의 결성사실을 알았고 투쟁방향과 성격에 공감하면서 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던 중 대구부호 徐昌圭를 대상으로 한 군자금 모집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지도부와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 되자 김재열, 정운일을 이끌고 대한광복단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 광복단의 조직과 인맥을 바탕으로 그는 채기중과 함께 1915년 7월 15일 대구에서 대한광복회를 성립시키고 총사령에 추대되었다.⁴²⁾

박상진이 총사령에 추대되었으나 대한광복회의 초기활동은 오히려 채기중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 자체가 대한광복단의 조직을 기반으로 확대 편성된 단체였기에 적어도 초기활동에서는 채기중 영향력이 두드러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梁碧濤實記’의 다음 기록에서 이러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

‘素夢公은 광복회를 조직하고 세상일 뜻과 같지 않음을 답답히 여겨 비밀리에 冒險勇士隊 팔십여명을 조성하여 만주로부터 권총과 탄환을 구입하고 전국에 출몰하면서 부호의 금고를 강탈, 군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朴尙鎭은 경주의 부호로 이름이 났는데 여러 해를 대구에 있으며 동지를 규합하느라 가재를 소비하였으나 여력은 있었다. 박상진은 경주에 살면서 대구를 왕래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朴, 蔡 兩公이 서로 연락하며 모험단원과 호응하니 最高部의 우재룡, 권영만, 유창순, 김한중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다. 공의 長子는 斗麻에 있었기에 氣脈을 통하여 연락하였다. 때문에 공의 삼부자의 힘을 입은 자들이 많았다. 박상진은 대구에서 군자금을 청구하기 위해 풍기의 채기중에게 연락하였고 채기중은 모험군인 5,6인과 권총수 김진만 김진우를 보내 서우순을 협박하였는데 일이 누설되어 형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일인의 감시가 심해 잠적활동이 곤란함으로 군자금 몇백만원을 모아 만주로 보냈다. 밖으로는 露國 및 중국과 결탁하였고 안으로 병사를 훈련하여 사직의 광복을 도모하는 것을 上計로 삼았다.’⁴³⁾

41) 梁漢緯, 『梁碧濤公濟安實記』 필사본

42) 禹在龍, 『白山實記』 (1955).

43) 梁漢緯, 『梁碧濤公濟安實記』 필사본

위의 자료에는 대한광복회의 초기 조직운영과 활동양상을 시사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먼저 결성 당시 광복회 대원의 숫자가 대략 80여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채기중에 모집된 단원임이 나타나 있다. ‘冒險勇士隊 80 여명으로 표현된 광복회 초기회원은 대한광복단원들을 주류로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인사들, 그리고 국내외에서 개인적으로 분산적인 활동을 펼치다 광복회 결성과 함께 가입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또한 ‘朴 蔡兩公이 서로 연락하면서 모험단원과 호응하니.....’ 라는 대목에서 감지되듯 양자는 결성 후 끊임없이 세력증강을 시도하였다.⁴⁴⁾

홍주의진 출신으로 뒤에 대한광복회 충청지부장을 맡았던 김한중의 경우 채기중이 그에게 박상진의 인물됨을 설명하고 또 직접 소개하여 가입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전라도 책임자 李秉昊 역시 채기중에 의해 광복회에 입단하였다.⁴⁵⁾ 산남의 진이 해산된 후 은거하던 白山 禹在龍이 박상진을 만나 광복회 합류를 결심하는 과정에도 양제안과 채기중의 역할이 컸으며 특히 碧壽의 장남 양한기의 권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⁴⁶⁾

단원규합과 함께 채기중은 대한광복회의 초기활동을 막후에서 지휘한 흔적이 나타난다. ‘梁碧壽實記’의 위 기록에는 1916년 9월의 이른바 ‘대구권총사건’이 전적으로 채기중의 지시하에 결행된 사실이 묘사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구권총사건’은 표면상 대한광복회의 박상진이 국권회복단원 崔俊明, 金鎭萬, 金鎭禹에게 명하여 일으킨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이들 행동대원을 직접 파견하여 서우순의 집을 습격케 한 지시자는 豊基의 채기중이었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1917년 대구복심법원에 회부되어 金鎭禹 징역 12년, 金鎭萬 鄭雲駟 崔丙圭 징역 10년, 崔俊明 2년, 朴尙鎭 金在烈이 6개월 그리고 李始榮이 징역 4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⁴⁷⁾ 형량을 보면 행동대원 김진우,

44) 이들이 모집한 단원들의 신상과 영입경위에 관해서는 朴永錫, 「大韓光復會研究- 朴尙鎭祭文을 中心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85), 82~88 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4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1, 684~692 쪽

46) 禹在龍은 蔡基中の 여러 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불구하고 朴尙鎭과의 만남을 주저하다 梁漢紀의 설득으로 豊基에서 대면한 후 光復會에 가입하였다고 회고하였다. 「禹在龍은 古友 朴尙鎭의 約曆을 手抄」, 『朴尙鎭資料集』, 373 쪽

47) 註 82)참조

김진만, 최병규가 가장 중형이었고 지휘자 박상진은 징역 6 월로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다. 그리고 배후 조종자 역할을 했던 蔡基中은 아예 체포를 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루자들이 가혹한 취조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배후와 지휘체계에 대한 비밀사건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제도 이 사건이 전적으로 조선국권회복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⁴⁸⁾

대한광복회 초기조직과 활동에서 채기중의 역할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그 인적 구성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대한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출신뿐 아니라 양 단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광복회의 지휘장을 역임했던 禹在龍과 權寧萬도 경상도에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 우재룡은 貫鄉이 丹陽이나 산남의진에 참여한 후 그 스스로 밝혔듯이 金泉郡 知禮로 우거하여 처자를 두고 영남 전역을 방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양벽도, 채기중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⁴⁹⁾ 권영만은 경북 영양이 고향으로 1907년 진보의진에 참전한 경력이 있고 조부로부터 3대에 걸친 의병출신이었다. 박상진이 권영만을 알게된 것은 許蔭일족이 眞寶義陳에 직접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때 허위의 대표적인 문인 박상진과 권영만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⁵⁰⁾ 또한 李庭禧와 같이 의병경력을 없으나 경상도의 지방세력가 출신으로 가세한 인물도 있다. 이정희는 경북 청도의 유지로 그가 아버지처럼 여겼던 석주 이상룡과 허위의 친분으로 박상진과 연결되었다. 1915년 대한광복회가 조직되자 이정희는 이석홍 권영목과 함께 가담하였으며 1916년에는 박상진과 사돈을 맺어 동지적 유대를 강화하였다.⁵¹⁾

8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대한광복회 초기조직에서 채기중의 영향력은 박상진이 대구권총사건으로 피검된 1916년 9월부터 출옥하는 1917년 7월 사이에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광복회 조직은 실질적으로 채기중의 책임하에 운영된 것으로 생각된다.⁵²⁾

우재룡의 ‘白山實記’에는 광복회 초기의 조직체계와 임원명단이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48)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7 (1988), 69 쪽

49) 朴永錫, 「大韓光復會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85), 83 쪽.

50) 朴永錫, 위의 글, 83 쪽.

51) 禹在龍, 『白山實記』 (1955).

52) 金希柱, 「素夢 蔡基中の 抗日獨立運動」, 『東國史學』 第38輯(2002), 150 쪽

司令官 - 朴尙鎭 指揮長 - 禹在龍 權寧萬
 支部長 - 蔡基中(慶尙道) 金漢鐘(忠清道)
 李秉燦(全羅道) 金善浩(京畿道)
 崔鳳周(咸慶道) 趙賢均(平安道)
 李海量(黃海道) 金東浩(江原道)
 本部事務 - 朴尙鎭, 崔俊, 李福雨
 滿洲 - 李錫大(司令官) 孫晦堂(安東旅館)
 鄭淳榮(三達洋行)⁵³⁾

우재룡은 위의 조직이 1915년 達城公園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였
 다.⁵⁴⁾ 그리고 임원을 맡은 인물들이 각자 책임을 분담하여 대구안일암사건(대구권
 총사건의 誤記 필자 주)으로 박상진이 피체되기 전까지 각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강원도 지부장 金東浩는 삼척출신으로 박상진이 복역중인 1916
 년 9월 대구 형무소에서 만나 출옥 후 가입시킨 인물이다.⁵⁵⁾ 채기중을 통해 참여
 한 김한중과 이병찬도 가입 시기가 각각 1917년과 1918년으로 나와있다.⁵⁶⁾ 따라
 서 위의 조직체계를 1915년 결성 당시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李海量 李觀
 求, 趙賢均 등 서북출신의 인사들은 이들과 박상진의 관계로 미루어 조직 당시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⁵⁷⁾

결국 대한광복회의 최초조직은 풍기의 大韓光復團을 중심으로 조선국권회복단

53) 禹在龍, 『白山實記』 (1955).

54) 禹在龍, 위의 책, 公園에서 ‘大會’를 열어 비밀결사인 光復會를 조직하였다는 이 기록은 정황으로 볼 때 신빙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최근, 광복회는 豊基에서 이미 결성되었고 達成公園의 모임은 그것을 추인하는 성격의 집회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劉準基 「大韓光復團과 大韓光復會」, 『대한광복단학술회의』 (2002), 42 쪽 그러나 추인의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과연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대회가 공원에서 개최될 수 있었을 것인가 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55) 朴尙鎭은 출감 후 경성에서 金東浩를 만나 光復會에 가입시켰다. 박상진은 그를 통해 강원도내 친일지주의 명단을 입수한 다음 이를 孫一民에게 전달하여 포고문 발송토록 하였다. 『독립운동사 자료집』 11, 703쪽

56) 위의 자료집, 692쪽

57) 박환, 「大韓光復會에 관한 새로운 자료 : 『義勇實記』, 『滿洲韓民族運動史研究』 (일조각, 1991).

의 일부세력이 합류하고 여기에 영남에서 개별적으로 암약하던 의병계열의 지사들이 가담한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조직기반의 특성상 초기운영과 활동에서 채기중의 비중이 두드러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916년의 ‘대구권총사건’ 당시 그가 수행한 막후 역할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위의 조직 중 경상도와 함께 규모와 활동이 주목되는 것은 1917년 金漢鍾이 설치한 충청지부이다. 김한중이 채기중의 소개로 박상진을 만나 광복회에 가입한 것은 1917년 6월이었다.⁵⁸⁾ 그러나 홍주의진 출신인 그는 1916년 7월 김경태 김재욱, 이철영등과 함께 부여에서 조선총독암살을 모의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미 충청도에서 상당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인물이었다.⁵⁹⁾ 김한중은 위의 사건으로 피신중 박상진을 만나 광복회 충청지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김한중은 이후 천안 출신의 장두환과 같이 충남 일대에서 비밀리에 단원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제시하면서 동지를 규합하였다.

‘日本은 東洋의 강대국으로 覇者라 칭하나 최근 國情을 看하면 內에 政爭이 頻發하고 天災地變이 도처에 發生하고 있다. 是는 天이 禍를 下한 所以로 장차 國運의 衰殘을 암시하는 증거이다. 故로 此期를 乘하여 列國에 동정을 호소하고 國權을 회복코자 한다. 그 수단으로 支那 間島 기타 재외동포의 다수 거주지에 무관학교를 興하여 병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저장하여 擧兵할 시기를 待하기로 한다. 동지는 此의 준비에 착수하여 尙 國內의 자산가에 軍자금의 제공을 명하였다. 諸君은 此의 趣旨를 了解하고 速히 此舉에 加盟하여 悔를 他日에 남기지 말라’⁶⁰⁾

즉 해외기지와 연계하여 병력을 양성하고 무기를 구입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의 친일부호들로부터 강제모금한다는 추진방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광복회 가입을 권유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관헌문서에는 이들의 설득으로 입단한 충청도의 광복회원 숫자가 총 49명으로 나와있다.⁶¹⁾

58)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684쪽.

59) 李成雨,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의 결성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2집 (2000), 62쪽.

60)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2 (1970), 432쪽.

61) 위의 책, 432쪽.

대한광복회 충청지부는 청양에 광무소를 설치하고 지역출신인 홍현주, 이재연, 김경태를 지부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충청도내의 소자산가에게 고시문을 발송하고 비협조적인 부호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충청지부는 홍주의진 출신과 함께 지부장 김한중의 가계가 다수 참여하였고 거점설치, 자금모집, 친일배척단 등 활동양상도 타지부에 비해 선도적이었다.⁶²⁾

광복회 지부 중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李觀求에 의해 조직된 황해도지부이다. 이관구는 본관이 韓山이며 黃海道 松和 출신이다. 전통적인 유림가문에서 성장하여 한때 유인석의 문하에도 있었던 그는 20세에 상경하여 박은식, 양기탁, 장지연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에 관여하였고 평양의 大成學校에서 신학문을 이수하였다. 일제강점 이후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주의 군관강습소를 수료하였으며 신해혁명에 참가하여 중국사의 변혁과정을 체험하였다. 남경, 노령, 하와이를 전전하다가 1914년 귀국하여 황해도 해주를 근거로 이종문, 오순원 등 유림계 인사들과 항일격문을 작성 배포하는등 민족운동에 전념하였다.⁶³⁾ 이관구가 황해도 지부를 조직한 시기는 이를 1916년 충청도를 중심으로 광복회 국내조직이 확장되는 시점으로 파악하는 견해와⁶⁴⁾ 결성초기인 1915년경으로 앞당겨 보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⁶⁵⁾

일제관헌문서와 이관구의 자서전 ‘義勇實記’에 나와있는 대한광복회 황해도지부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觀求, 成樂奎, 曹善煥, 李錫熹, 邊東煥
 李根永, 李文成, 李根奭, 朴元東, 韓聖根
 吳瓚根, 李和淑, 李鶴燾, 趙賢均, 朴東欽
 趙鏞昇, 梁鳳濟, 趙百泳, 崔正鉉, 尹憲
 柳準熙, 高俊洵, 梁擇善⁶⁶⁾

62) 李成雨, 위의 글 73~87 쪽

63)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2, 482 쪽, 참조.

64) 趙東杰,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275 쪽

65) 박환은 李觀求가 辛亥革命 당시 朴尙鎭을 만났으며 1914년 귀국 후 慶州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조직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박환, 앞의 책, 373~375 쪽

66) 國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480쪽, 박환, 앞의 책, 370~372쪽.

위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황해도의 정통유림 집단으로 학문적인 계보로 볼 때 李恒老와 宋秉璿의 계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⁶⁷⁾

이관구는 유림출신이면서 신학문을 이수하였고 중국에서 군관학교를 졸업한 혁신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조선환, 이근영, 이문성등은 유인석 문하의 유학자들로 의병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의 인물들도 위정척사의 정신에 사상적 기반을 둔 보수유림들이었다.

광복회 전라지부는 寶城과 光州를 근거지로 채기중의 책임하에 조직되었다. 우재룡의 實記와 ‘光復會復活趣旨及沿革’에는 광복회 전라지부장의 이름이 모두 李秉燦으로 나와있다.⁶⁸⁾ 이병찬은 채기중이 1917년 가입시킨 李秉昊와 동일인이다. 광복회 재판기록에는 그가 채기중을 만나 광복회의 활동취지를 전해듣고 기부금을 요구할 전남의 자산가 명단을 전달한 날짜가 1918년 1월로 되어있다.⁶⁹⁾ 그러나 같은 기록에서 이병호는 채기중과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의 광복회 가입은 훨씬 전으로 생각된다. 채기중은 이병호를 통해 崔勉植을 전남지부에 입단시켰으며 그로부터 권총을 입수하여 무기로 활용하기도 하였다.⁷⁰⁾

전라지부는 이들과 李明瑞 정도를 제외하고 여타 회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광주, 목포, 보성, 담양 등 주로 전남을 중심으로 부호에게 고시문을 발송하는 자금모집활동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채기중의 책임과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⁷¹⁾ 蔡基中이 전라지부의 조직과 운영을 주도하였다면 그 시점은 박상진이 구금된 1916년 7월 이후일 것이다. 대한광복단의 인맥을 기반으로 박상진과 함께 초기조직을 결성했던 채기중은 박상진이 피검된 후 실질적 지휘자로 대한광복회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⁷²⁾

강원지부는 앞서 언급한대로 박상진이 1916년 9월 대구감옥에서 만난 金東浩를

67) 박환, 위의 책, 375쪽.

68) 禹在龍, 『白山實記』(1955); 『光復會復活趣旨及沿革』(1945).

69)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11, 706쪽.

70) 위의 책, 707쪽.

71) 蔡基中은 1918년 1월 李秉燦으로 부터 전남지역 부호들의 명단을 수령한 후 포고문을 작성하여 金漢鍾과 함께 이를 대전, 정읍, 이리 등의 驛舍 우편함에 투척하였다 (위의 책 707쪽).

72) 金希柱, 앞의 글, 150~152쪽.

책임자로 임명하여 조직되었다. 김동호는 이후 박상진의 요구로 강원도내의 자산가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박상진과 손일민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강원지부의 활동은 이 이상 추진되지 않았고 회원도 김동호 외에는 발견할 수 없다.⁷³⁾ 그리고 경기도(金善浩)와 함경도지부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목상의 조직이 아니었던가 한다.

결국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피검된 1917년을 전후하여 조직이 상당한 변천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1915년의 초기조직은 대한광복단을 주축으로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세력 그리고 영남지역의 의병잔존인사들이 가담한 경상도 중심의 결사였다. 박상진이 총사령으로 추대되었으나 구성원의 분포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직내에서는 오히려 채기중의 역할과 비중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채기중은 80여 명으로 추정되는 초기 광복회원들을 적극적으로 규합하였고 1916년 7월의 이른바 ‘대구권총사건’도 막후에서 지휘하였다.⁷⁴⁾ 박상진이 구속된 후 채기중은 그 공백을 메우며 전라도지부의 결성을 주도하는등 광복회의 재편에 진력하였다. 이후 1917년 박상진이 출감하자 김한중, 장두환에 의해 충청지부가 결성되었고 충청지부는 기존의 경상도조직과 함께 광복회의 의열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 후계조직의 구성과 활동

대한광복회의 조직과 활동은 도고면장 박용하처단 사건을 충남경찰부가 일제히 수사하는 시점을 계기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1918년 1월 27일 천안군 환성면에서 장두환이 검거되고 연루자들이 잇달아 체포되면서 조직이 노출되었다. 같은 해 2월1일 안동에 피신 중 生母의 부음을 듣고 귀가한 박상진이 피체된 것을 시작으로 蔡基中, 김한중, 林世圭, 金敬泰 등의 지도부와 회원들이 연이어 구속되어 광복회 조직은 1918년 말경에 와 거의 붕괴되고 말았다. 6월 18일 황해도 지부장 이관구 마저 피검됨으로 광복회의 주요임원과 지부책임자는 대부분 체포되었던 것이

73) 金東浩의 전력은 알 수 없으나 항일운동 경력의 소유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는 감사의 취조에 자신은 협박에 의해 가입하였다고 밝혔으며 감옥 내에서 박상진의 행동을 비난하는 등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703쪽.

74) 梁漢緯, 『梁碧壽公濟安實記』 필사본

다.75)

그러나 1910년의 이러한 위기가 대한광복단 전체조직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술하겠지만 대한광복단은 조직규모가 광범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구성도 다원적인 비밀결사였다. 박상진을 중심으로 한 핵심지도부가 체포, 희생되었지만 일부 단원들은 수사망에서 벗어나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결성 초기에 참여하여 조직발전의 산파역을 맡았던 양제안, 한위 부자 박상진과 같이 합류하여 본부사무를 맡았던 이복우, 경주 세금마차 습격의 주역 권영만, 우재룡 등이 모두 체포를 면하였다. 특히 한훈, 김상옥, 유장렬, 정만교 등 초기구성원들은 전혀 정체가 노출되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광복단이 결성되어 활동하는 동안 요소에서 간부 혹은 행동대원으로 활약한 인물들이었다. 일제는 약 1년만에 걸친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비록 활동은 일시 침체 되었으나 이들 잔존단원들에 의해 대한광복단의 생명은 이어져 갔다. 이중 한훈, 김상옥은 3.1운동 직후 광복단결사대와 암살단을 조직하여 동단의 투쟁을 재기하게 된다. 양 단체는 이후 암살단이 광복단결사대에 합류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광복단 후계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후계조직의 결성경위와 활동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1916년 전라도에서의 군자금 모집투쟁 이후 이들은 일시 헤어져 각기 독립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먼저 한훈은 寶城과 朴谷에서 서도현 양재성을 처단한 뒤 수사망을 피해 만주와 국내를 넘나들며 암약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한훈은 韓偉建과 함께 거사를 밀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무기구입 준비에 착수하였다.76) 이 과정에서 그는 군산에 거주하는 白雲鶴의 협조로 金炳淳, 崔基培 등 일제 고등경찰 형사를 포섭하는 대담성을 발휘하였다.77)

75) 검거된 단원들은 公州地法과 大邱覆審法院을 거쳐 1919년 9월 11일 京城高等法院에서 형량을 선고받았다. 朴尙鎭, 蔡基中, 金漢鍾, 林世圭, 庾昌淳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張斗煥, 金在昌이 각각 징역 7년을 언도받았다. 매일신보, 1919. 9. 24.

76) 韓焄, 「大韓光復團 團長 履歷書」(1945).

77) 韓偉健은 경성의학 전문학교 학생으로 3.1운동 당시 학생층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白雲鶴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데 ‘群山’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대한독립의군부 출신이 아닌 가 하는 추측이 있다. 張錫興,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노선」, 『한국근현대사연구』, 17집(2001), 53-54 쪽. 白雲鶴은 韓焄가 상해에서 권총과 탄약을 국내에 반입하였을 때 그 보관처로 자택을 제공했을 만큼 밀접한 관계였다. 李炳憲, 『3.1運動秘史』, 時事時報出版局(1959), 1008 쪽.

1919년 5월 재차 도만한 한훈은 金東淳과 같이 길림에 조직된 朝鮮獨立軍政署에 가입하여 이듬해까지 활동하였다. 1920년 1월에는 최우송으로부터 조선내 군사금수합의 명령을 받고 권총 3정과 탄환 30 여발을 휴대한 채 안동현과 신의주를 거쳐 경성 인의동 김기봉의 집에 잠입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김상옥과 재회하여 향후 진로를 모색하였다.⁷⁸⁾

한훈의 광복단결사대 조직구상은 1920년 1월 경성에서 박문용과의 회합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光復團事件豫審終決書’에는 그 과정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피고 韓禹錫은 대정 9년 1월중 경성부 笠井洞 朴文鎔과 회합하여 같이 조선 독립을 위해 활동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2월말경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간부 金徹, 李東輝, 安昌浩, 李東寧, 李始榮등과 회합하고 경성을 중심으로 朝鮮獨立軍司令部를 둔 다음 독립단을 조직하고자 임시정부에 助力을 구하였다. 또 군사금 모집을 위해 동년 3월 7일경 경성에 돌아와 피고 박문용외 수명과 협의 한 후 조선독립군사령부에 속할 募兵을 할 목적으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⁷⁹⁾

위 자료를 보면 한훈이 임정요인들과 접촉하고 그들이 지원으로 통해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박문용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문용은 전남 보성출신으로 1913년 중국에 망명하여 천진에서 新民報 기자생활을 하다가 不變團에 입단하여 부단장으로 활약한 인물이다.⁸⁰⁾ 박문용이 1913년 이후 중국에서 활동하였다면 역시 같은 해 3월 만주에 일시 망명한 한훈과는 이 시기에 이미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⁸¹⁾ 그의 주선으로 한훈은 1920년 2월 상해에서 임정 교통차장 金徹과 安昌浩, 李東寧, 李東輝, 李始榮을 만나 결사대의 구성과 활동방향을 협의하게 된다.⁸²⁾ 동년 3월 8일 귀국한 이들은 우재룡, 임기현과

78)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10, 1054~55 쪽

79) 「光復團事件 豫審終決書」, 『3.1運動秘史』 (1959), 1011쪽.

80) 張錫興, 앞의 글, 58쪽.

81) 日帝 關硯기록에는 韓焄과 朴文鎔이 처음 회합한 날짜가 1919년 7,8월경으로 나와있으나 (『獨立運動史資料集』 10, 1054~1055쪽) 이들의 동지관계는 훨씬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남산공원에서 임정과와의 접촉결과를 토의하고 향후의 활동방향을 모색하였다. 여기에서 군사령부의 장교는 상해 임정으로 파견하고 병졸은 간도에서 양성하며, 국내에서는 소수의 결사대가 조선총독과 정무총감 그리고 이완용, 송병준, 조선인형사 등 친일배들을 처단한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⁸³⁾ 이 중 해외 파견안은 실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결국 국내 결사대의 조직만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광복단결사대의 성립을 보게 된 것이다.

광복단결사대의 구성원으로 확인되고 인물은 金炳淳, 崔基培, 尹奇重, 尹祥普, 金衡圭, 李根榮, 柳鶴柱, 奇明燮 등이다. 한훈은 황금정 6정목(지금의 을지로 6가)에 거처를 정하고 임정특과원 朴桓과 같이 이들을 규합하였다.⁸⁴⁾ 이중 김병순과 최기섭은 1919년 한훈이 군산에서 포섭한 고등경찰형사였고 윤상모, 기명섭은 홍주의진과 대한광복단 시절의 동지였으며 나머지는 서울에서 영입한 인물로 보인다. 조직을 구성한 한훈은 1920년 7월 다시 안동현에 잠입하여 임정특과원 최우영의 도움으로 권총 3정과 실탄 300발을 구입하고 귀국하였다.⁸⁵⁾

광복단결사대는 결성 직후인 1920년 초 두 차례에 걸쳐 군자금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4월 한훈, 고제신, 임성태 등이 전북 군산 김제 일대에서 모금 활동을 추진하였다. 고제신은 1916년 한훈과 보성 벌교에서 행동을 같이한 경험이 있다. 고제신, 임성태는 한훈이 미국의원단 방한의거에 참여하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2년 피체되었다.⁸⁶⁾ 이어 같은 해 5월 한훈과 박문용의 주도로 결사대원 수명이 전남 光州郡 本村面 盧軫永에게 군자금 각출을 요구하여 한달 뒤 1천원을 수합하였다.⁸⁷⁾

광복단결사대가 조직 후 전개한 활동은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결사대의 인적구성이 소수정예로 이루어져 대한광복회의 활동 때와 같이 전국적인 조직망과 인력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훈은 이러한 인적제약을 극복하고 단원을 보강하여 전국적 규모의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결사대와 인

82) 李炳憲, 『3.1運動秘史』, 時事時報出版局 (1959), 1012 쪽

83) 張錫興, 앞의 글, 59~60쪽.

84) 『金相玉, 羅錫疇烈士抗日實錄』, 金相玉, 羅錫疇 烈士紀念事業會 (1986), 72 쪽 (이하 『항일실록』

85) 『3.1운동비사』 (1959), 1011 쪽

86) 장석홍, 앞의 글, 62쪽.

87) 『光復團豫審終結書』, 『3.1운동비사』 (1959), 1012 쪽.

맥과 이념의 뿌리를 같이하는 金相玉의 암살단과의 제휴를 적극 모색하게 된다.

김상옥은 대한광복단의 창단멤버로 1916년 한훈과 전라도에서 함께 활동하였고 이후 서울에서 馬蹄공장을 경영하며 민족산업육성에 전념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의 한훈에 비해 김상옥이 계몽적인 활동에 치중한 것은 그 자신이 관여한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발각되면서 국내에서의 행동반경이 제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김상옥은 국산장려운동이나 일제상품배격운동과 같이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면서⁸⁸⁾ 본격 투쟁의 시점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김상옥이 사업경영에서 벗어나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항쟁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는 역시 3.1운동이었다. 3.1운동의 여파가 전국으로 파급되고 있을 즈음인 1919년 4월 1일 김상옥은 교회에서 교분을 맺은 동지 朴露英, 尹益重, 鄭高敎와 동대문 장로교회 뒷집에 거주하던 영국인 피어선 여사의 집에 모여 비밀결사 革新團의 조직을 결의하였다.⁸⁹⁾ 이날 모임에서 이들은 3.1운동의 전과상황과 수원남망 제암리학살사건을 토론하면서 일제에 대한 적개심을 토로하였고 이어 박노영의 제안으로 투쟁단체를 조직할 것에 합의하였다.

다음날 연지동 16번지 이춘식의 자택에서 회동한 김상옥과 그의 동지들은 하룻동안의 토의 결과 團의 명칭을 革新團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무기를 통한 직접 대결 보다는 신문발행을 통해 식민지 통치의 무단성과 상해 임정의 활동상, 그리고 재미동포의 독립운동 상황 등을 조사, 보도하는 일종의 지하언론투쟁방식을 채택하였다.⁹⁰⁾

신문의 명은 革新公報로 정해졌고 발간 당시 단원들의 임무와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다.

88) 金相玉은 직공 50명과 함께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제 모자를 쓰지 않으며 일본물건을 이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害惡을 널리 알릴 것을 서약하는 등 일제상품 배격운동을 실행하였다. 金相玉烈士記念事業協會, 『金相玉烈士鬪爭史』(1949), 14~16쪽.

89) 金相玉, 羅錫疇 記念事業會, 『抗日實錄』(1986), 42쪽.

90) 革新團이 무장투쟁 대신 신문 발행을 선택한 것은 이것이 소수의 인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항일 운동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위의 책, 43쪽) 또 臨政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를 직접 구입하기 어려운 여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金相玉 ~ 단조직 및 선정배달
 朴露英 ~ 편집취재 및 논설책임
 尹益重 ~ 재정조달 및 해외통신담당
 徐大順 全宇鎭 金華龍 ~ 인쇄배달⁹¹⁾

이러한 편성체계에 따라 혁신공보의 제작이 착수되었다. 윤익중이 해외비밀통신을 수집하고 박노영이 국내통신을 맡아 준비한지 일주일만인 4월 17일 혁신공보 창간호가 발간을 보게 되었다.

혁신공보의 편집과 배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박노영 윤익중이 작성한 원고는 연락원 김화룡에 의해 야간에 인쇄담당자 서대순(당시 수화동 보통학교근무)에게 전달되었다. 서대순은 이 원고를 자택의 천장에 가설한 비밀인쇄장소에 가져가 밤새 2천여부를 등사한 후 채소상으로 가장한 김상옥에게 전달하여 배달케 하였다.⁹²⁾ 이후 혁신공보는 독립신문으로 개명하여 일제의 감시를 피해가며 2개월여 동안 배포됨으로 독립사상을 계몽하고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의 역할을 다하였다.⁹³⁾

革新公報는 그해 11월까지 제작 배포되었으나 그후 일경의 감시 추궁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상황에 재정부담마저 가중되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김상옥과 단원들은 신문의 존폐여부를 두고 회합을 거듭하였다. 그 결과 상해일정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얻고 임정과 국내단원들의 연대하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다.⁹⁴⁾

그리하여 같은 해 12월 초, 朴露榮, 金奉信을 혁신공보 대표로 선정하여 상해로 파견하였으나 그들이 연말 김상옥 앞으로 보내온 편지는 임정의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더구나 이 편지가 도착하기 직전 발간 이래 인쇄를 담당해왔던 서대순이 구금되어 등사기를 비롯한 여러 증거품을 압수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단원들은 도피하게 되었고 신문의 발행도 사실상

91) 위의 책, 43쪽

92) 金相玉烈士記念事業協會, 『金相玉烈士鬪爭史』(1949) 30-31쪽.

93) 劉準基, 「1910年代 기독교인의 抗日獨立運動의 一樣相」, 『論文集』 제 10집 總神大 學校(1991), 123쪽.

94) 劉準基, 앞의 글, 125쪽.

중단되었던 것이다.⁹⁵⁾

이와 같은 난관을 겪으며 김상옥은 결국 종래의 투쟁방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즉 신문발행과 같이 계몽적인 항일운동 대신 보다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실천운동으로의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대한 광복단 단원으로 수행하였던 무장투쟁의 노선을 재개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는 70의 나이에 齊藤總督에게 폭탄을 투척한 姜宇奎의 예를 들어 단원들에게 무력을 동원한 직접행동에 가담할 것을 설득하였다.⁹⁶⁾

김상옥의 이러한 노력은 혁신단 동지들과 그 조직을 기반으로 한 暗殺團의 성립으로 결실을 보게 된다. 암살단은 혁신단 조직이 기초가 되었으나 행동목표는 혁신단과 달리 암살, 파괴와 같은 의열투쟁을 정면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대원의 확보, 무기구입, 단원훈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암살단이 이러한 행동노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은 1920년 3월 길림군정서에서 특파되었던 金東淳이었다.⁹⁷⁾ 김동순은 국내에서 군자금 2백만원을 모집한 후 적경찰서를 파괴하고 치안을 교란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파견되었다. 그는 서울에서 길림군정서참모 朴寬海의 아우인 朴勝睦과 접촉한 뒤 박승목의 동료 윤일중을 통해 암살단 조직에 관여하게 된다.⁹⁸⁾

김동순은 김상옥과 암살단 구성에 합의한 후 길림군정서로 가 그 내용을 보고 하였으며 그해 4월 권총 3정과 탄약 300발을 휴대하고 귀국하였다. 그의 귀국과 함께 암살단 조직이 성립되었던 것이다.⁹⁹⁾

암살단의 구성원은 김상옥과 김동순을 중심으로 이돈구, 윤익중, 신화수, 김화룡, 서병철, 서대순, 김덕흥, 최우송, 김교상, 김종원, 조만식, 명제세, 최영만, 김소

95) 金相玉, 羅錫壽紀念事業會, 『抗日實錄』 (1986), 49~50 쪽

96)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7 (1976), 360쪽.

97) 金東淳이 국내에 잠입한 날짜에 대해서는 1920년 1월(『獨立運動史』 7 360쪽)과 동년 음력 3월 10일 (『獨立運動史資料集』 11, 109쪽)의 두 가지 기록이 있다. 劉準基教授는 뒤의 자료가 1920년 9월 김동순이 체포된 후 심문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劉準基 앞의 글, 13쪽) 本稿에서는 후자를 따른다.

98) 金東淳은 효계동 73번지 李惠受의 자택에서 金相玉을 만나 3.1운동 이후 만주 항일단체의 현황과 활동전략을 설명하고 국내에서의 투쟁방향을 제시하였다. 『金相玉烈士鬪爭史』 44~46 쪽

99)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7, 361 쪽

사, 김승현, 김영노, 김승택, 유인원등이 참여하였다.¹⁰⁰⁾ 이들은 실행행동책에 김상옥, 무기공급책 김동순, 재정책 윤익중, 비밀문서책 신화수, 집총대장 서대순 등으로 부서조직을 이루고 중앙청년체육회, 애국부인회 대동단과 횡적으로 제휴하여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¹⁰¹⁾

조직을 정비한 암살단은 행동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단의 취지서와 일인고 관에게 보내는 경고문 조선인 관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勸告文 등을 대량으로 인쇄하여 저장하였다. 그리고 김상옥은 김동순과 길림에서 함께 귀국한 張一鎭과 단원들을 인솔하고 북한산 산중에서 매일 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다가올 거사를 대비하였다.¹⁰²⁾

암살단이 대원을 양성하고 의열투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김상옥은 간부들과 자금조달 방안을 여러 차례 토의하였고 그 결과 일차모금액을 3만원으로 책정하였다.¹⁰³⁾ 그는 재정책 윤익중의 의견에 따라 종로경찰서를 비롯한 몇 개의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암살단의 취지서와 경고문을 살포하며 자산가에게 통고문을 발송해 목표액을 달성키로 결정하였다.¹⁰⁴⁾ 이 중 경찰서 파괴 계획은 실천되지 못하였지만 김상옥, 김동순은 당시 朝鮮伯爵 朴泳孝와 변호사 朴勝彬을 직접 방문해 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밖의 단원들은 자산을 매각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다.¹⁰⁵⁾ 이처럼 김상옥의 암살단은 1920년 4월 조직이후 단기간에 단세를 확장시키고 단원을 조련하며 운동자금을 모집하는 등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암살단은 전국 규모의 의열투쟁을 전개하기에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실전에 사용할 무기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었다. 결성 기반인 혁신단 자체가 비무장 조직이었기에 단이 무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암살단의 보유무기는 김동순이 만주에서 반입한 권총

100)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11, 106~108 쪽

101) 金相玉紀念事業協會, 『金相玉烈士鬪爭史』 (1949), 62 쪽

102) 金相玉, 羅錫疇紀念事業會, 『抗日實錄』 (1986), 56~60쪽.

103)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資料集』 11, 109 쪽

104) 劉準基, 앞의 글, 137 쪽

10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 7, 361 쪽

3정과 탄약 300발이 전부로 실전에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김상옥은 무기구입을 위해 吉林軍政署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지원을 승낙받았으나 3.1운동 이후 강화된 일경의 국경감시로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김상옥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단의 역량을 강화시켜 1920년 8월 미의원단 방한의거와 같은 대규모의 거사를 준비하기 위한 방략으로 한훈의 광복단결사대와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광복단결사대는 상해임정의 지원 아래 여러 차례에 걸친 한훈의 밀행으로 국내에 다량의 무기를 확보한 상태였다. 한훈은 김병순과 같은 고등계 형사를 포섭하여 이를 보관하며 결행의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광복단결사대는 화력에 비해 구성원의 수가 단출하여 세력이 확대되지 못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암살단은 이와 반대로 인적구성은 다양하였으나 무기구입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양 단체의 결합은 조직의 취약점을 상호 보완한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¹⁰⁶⁾

한훈과 김상옥이 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한 것은 1920년 7월 경이었다. 한훈은 동년 7월 7일 안동현에서 임정과견원 崔宇榮과 접선후 권총과 실탄을 휴대한채 귀국하였다. 이어 7월 11일 경성에서 柳勳의 주선으로 김상옥을 만나 암살단의 합류를 결정하였다.¹⁰⁷⁾ 이로써 풍기 대한광복단의 창단동지였던 이들은 1916년 보성별교에서의 의열투쟁 이후 4년 만에 동일한 조직체에서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

한훈은 大韓光復團, 大韓光復會, 光復團決死隊로 이어지는 조직의 변천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였다. 반면 김상옥은 광복회가 붕괴된 후 잠시 계몽적인 운동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후의 정세변화에 따라 다시 과거와 같은 직접투쟁으로 노선변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암살단이 합류한 광복단결사대는 인맥과 투쟁방략에서 명실공히 대한광복단의 후계조직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대한광복회 조직이 발각된 후 잠시 중단되었던 대한광복단의 抗日鬪爭이 한훈, 김상옥이라는 창단초기의 주역들에 의

106) 金相玉烈士紀念事業協會, 『金相玉烈士鬪爭史』, 78쪽.

107) 「光復團豫審終結書」에는 양 단체의 통합을 주선한 인물이 柳勳으로 되어 있으나 (李炳憲, 『3.1 운동비사』 1011쪽) 『抗日實錄』에는 柳世觀으로 나와 있다. (『抗日實錄』, 72쪽) 양자는 동일인으로 생각된다.

해 재개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團勢가 신장된 광복단결사대는 1920년 8월 미의 원단의 서울방문에 때맞춰 과감한 투쟁전략을 수립하고 거사준비에 착수하였다.

美國議員團의 來韓은 당시 국내의 독립운동세력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大韓民國 臨政과 만주, 그리고 국내의 각 단체들은 상호 긴밀한 연대하에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진통 끝에 미의원단의 서울방문이 결정되자 임시 정부는 내한에 때맞춰 국내에 6가지의 활동방침을 지시하였다.¹⁰⁸⁾ 이 중 특히 ‘급진파는 테러행위를 감행하여 排日氣勢를 보일 것’이라는 제4항에 따라 의원단의 남대문역 도착에 맞춰 현장에서 대규모의 거사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실행을 담당할 단체가 光復軍總營과¹⁰⁹⁾ 한훈의 光復團決死隊였다.

한훈과 김상옥은 1920년 8월 상순부터 의원단 방한에 대비한 전략수립에 착수하였다.¹¹⁰⁾ 이들은 우선 거사에 사용될 무기확보에 주력하였다. 이미 암살단이吉林軍政署로부터 조달받기로 한 계획이 좌절된 직후였기에 무기는 한훈이 그동안 상해에서 반입하여 국내에 비밀리에 보관하던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¹¹¹⁾ 김상옥은 신변보호와 작전구상을 위해 楊平의 사찰에서 5일을 보내고 8월 17일 귀경하여, 韓焄, 金相玉, 金東淳과 함께 다음의 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광복단

108) 朝鮮總督府 警務局이 입수하여 東亞日報 지상에 발표된 臨政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臨政에서 발송한 獨立請願書를 미의원들에게 전달하여 韓國獨立을 호소할 것
2. 미의원단을 대환영하여 정성껏 접대할 것
3. 미의원단이 서울역에 도착하였을 때 南大門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할 것
4. 急進派는 테러행위를 감행하여 排日氣勢를 보일 것
5. 미의원단을 殺害하여 美日戰爭을 유발하고 한국독립을 달성할 것
6. 의원단의 환영회 개최를 시도하고 환영회 석상에서 한국독립에 대한 연설을 시도할 것. 東亞日報, 1920. 8.25.

109) 光復軍總營은 1920년 1월 中國 吉林省에서 李鐸, 吳東振 등 주로 평안도 출신의 지사들이 결성한 항일단체로 寬甸縣에 支團을 설치하고 단원을 규합하였다. 조선독립을 방해하는 자와 강제 병합 과정에 협력한 조선인들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하고 폭탄물을 통한 암살, 파괴를 투쟁수단으로 채택하였다. 미의원단 방한을 계기로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던 것이다.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1004 쪽

110) 「光復團豫審終結書」, 李炳憲, 앞의 책, 1011 쪽.

111) 韓焄은 국내에 반입한 무기를 각지에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群山の 金炳淳에 폭탄 2 척과 권총 10 정 大田의 尹希炳에게 권총 10 정, 서울 낙원동 安召史에게 권총 5 정을 맡겼으며 서울역 운송점에 화물로 가장하여 폭탄과 모젤권총 다수를 은닉하였다. 김상옥, 나석주열사 기념사업회 『抗日實錄』, 78 쪽.

결사대는 의원단이 8월 24일 남대문역에 입경하여 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 환영인파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경고문과 암살단취지서를 살포하기로 하였다. 이는 시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위해 대원 수명이 군중사이에 섞여 만세를 선창하며 인파를 자극한다는 방안도 정해졌다.¹¹²⁾ 본격적인 행동은 다음날 의원단 일행이 남대문을 지나 종로에 진입하는 순간 거행기로 하였다. 즉 자동차 3대를 준비하여 2대는 사격설비를 갖추고 나머지 한 대는 폭탄을 장착하여 의원단과 동행하는 조선총독 및 고관들을 암살한다는 것이었다.¹¹³⁾ 그리고 경비대가 출동하면 이들과 시가전을 감행하며 일부대원들은 그 틈을 노려 경찰서와 관공서를 폭파한다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었다.¹¹⁴⁾

광복단결사대의 이러한 투쟁계획은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미의원단에게 직접 표현함으로써 국제여론을 일시에 부각시키자는 목적하에 추진되었다. 투쟁의 규모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도로 만약 실행된다면 그 효과는 3.1운동의 비폭력 항쟁보다 더 큰 관심과 방향을 국내외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담한 것이었다.

의원단의 방한이 다가옴에 따라 광복단결사대는 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한훈은 무기와 함께 환영식장에서 사용할 태극기와 미국 국기 200매 그리고 변장용으로 경시복장 4벌을 구입하였다.¹¹⁵⁾ 김상옥은 趙晩植, 金敎相, 金敎善 형제와 함께 남대문역에 살포할 경고문과 취지서의 인쇄를 담당하였다.¹¹⁶⁾ 종로에서 총독과 고관암살을 단행할 행동대원으로는 서대순과 이운기가 결정되었다. 이들은 8월 초 서울 창신동 김상옥의 자택에서 결사대의 의거 계획을 전달받고 집행대원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동순은 8월 20일 종로 사정목 15번지 포목상 朴承稷의 집에 잠입하여 활동자금 1천원의 제공을 약속받는 등 거사일 직전까지 자금모집 활동을 계속하였다.¹¹⁷⁾

112) 김상옥 나석주 열사 기념사업회 『抗日實錄』 (1986), 73 쪽

113) ‘光復團 豫審終結書’에는 도착 첫날 남대문역에서 總督과 政務總監을 암살한 계획이었으며 金東淳이 길림의 崔友松으로부터 인계받은 폭탄과 권총을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李炳憲, 앞의 책, 1012 쪽) 반면 「김상옥열사투쟁사」에는 총독암살을 의원단 도착 다음날 鐘路에서 결행할 예정이었다고 나와 있다. (『金相玉烈士鬪爭史』, 81 쪽) 정황으로 보아 후자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4) 金相玉烈士記念事業協會, 『金相玉烈士鬪爭史』 (1949), 82 쪽

115) 김상옥, 나석주열사기념사업회 『抗日實錄』 (1986), 78 쪽

116) 東亞日報, (1921 6. 25).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의원단이 도착하기 이틀전 김상옥은 한훈을 자신이 경영하는 철물점 2층에서 만나 비밀리에 보관했던 무기와 탄약을 다음날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서대순과 이운기를 불러 동지들과 연락 시간을 엄수할 것, 실제로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 민첩하고 대담하게 대응할 것, 등의 행동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작전계획을 숙의하며 결행의지를 다졌던 것이다.

그러나 광복단결사대의 미의원단방한의거계획은 실행 하루전인 8월 23일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대대적인 예비검속으로 김상옥의 자택이 수색당하고 이미 작성한 경고문과 취지서가 발각됨에 따라 탄로 나고 말았다.¹¹⁸⁾ 朝鮮總督府 警務局은 미의원단의 서울 도착을 기하여 국내에서 대규모의 거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그리고 입국이 결정된 시점을 전후해 신의주, 평양 등지에서 앞서 언급한 광복군총영의 폭탄의거가 감행되는 등 저항의 움직임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치안당국은 대대적인 경계태세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경무국은 8월 23일부터 의원단이 출국하는 30일까지 요시찰 인물 100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집중 단속하였다. 이러한 감시망에 革新公報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던 김상옥이 포착된 것이었다. 8월 23일 오전 9시, 동대문 경찰서 소속의 형사 10여명이 김상옥의 자택을 급습, 가택수색을 시작하였다. 김상옥은 동대문학교 교사 강일권의 도움으로 피신하여 체포를 면했으나 보관하고 있던 경고문과 암살대상자 명부 및 단원 명단 등이 모두 압수당함으로 광복단결사대의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다.¹¹⁹⁾

한편 계획이 탄로 난 사실을 몰랐던 한훈은 약속한 오전 11시 무기를 전달하기 위해 약속한 철물점 2층에 도착하였다가 잠복중이던 일경에 검거되었고 소지했던 권총 3점과 탄환 300발도 압수당하였다.¹²⁰⁾ 한훈의 피체로 광복단결사대의 조직은 노출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미의원단의 入京이 봉천에서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동대원 서대순과 이운기는 잠적하였으며 도피 중이던 김동순 마저 9

117) 李炳憲 編, 『三一運動秘史』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1012~1013 쪽

118) 김상옥, 나석주 열사기념사업회 앞의 책 75~78 쪽

119) 『金相玉烈士鬪爭史』 (1949), 83~88 쪽

120) 「六穴包暗殺團」, 東亞日報, 1920. 8. 26.

월 7일 종로에서 체포됨에 따라 同月 30일 까지 단원의 대부분이 검거되고 말았다.¹²¹⁾

이때의 상황을 東亞日報는 1920년 9월 17일자 「대암살단의 巨魁」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京城과 釜山 大邱등 각도회지의 중요한 건축물을 부시고 요로의 大官을 암살하고자 한 東淳이라고 변명한 金一은 중국 吉林방면으로부터 경성에 비밀리에 들어와 독립단원으로 전에 재판소 서기로 다니던 조만식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맺어 府内の 조선인 부호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강성한 일이 발각되어 경기도 제3부의 손에 체포되었는데 일찍이 변호사 朴勝彬씨의 집에서 돈1천원을 강탈하였다는 사건도 同人등의 소행인 듯하며 또 美議員團이 경성을 통과할 때 폭탄을 던지려고 계획하다. 검거되어 옥혈포와 탄환을 빼앗긴 韓禹錫과도 무슨 관계가 있는 듯하다.’¹²²⁾

위의 기사에서 김상옥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가 체포를 면하였기 때문이다. 3년 뒤인 1923년 동아일보 호외에는 일자는 다소 오류가 있으나 사건의 경위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그 이듬해(1920) 7월 미국의원단이 동양을 시찰하던 길에 조선을 들러가게 됨에 그는 동지들을 모아 암살단을 조직하여 미국의원이 경성에 들어오는 날 조선 총독 이하 총독부의 각 대관을 암살하여 조선청년이 일본통치에 반대하는 기세를 보이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한우석 외 24명 모두 잡히매 그는 그해 7월 13일 오전 10시경 형사의 에워싼 속을 벗어나 돌연히 상해로 도주하였으며.’¹²³⁾

김상옥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해 10월 상해로 망명하였다 이후 의열단

121) 체포된 단원들의 명단과 검거 당시 이들의 연명은 (『獨立運動史資料集』 11, 106~108 쪽과 「光復團 豫審終結書」, 『三一運動秘史』 1009~1010쪽)에 상세히 나와있다.

122) 東亞日報, 1920. 9.17.

123) 東亞日報, 1923. 3.15.

에 입단하여 활동하던 그는 1923년 1월 12일 서울에 잠입하여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효계동에서 경관과 총격전을 벌이다 순국하였다.¹²⁴⁾ 한훈은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경성형무소에서 복역 중 1916년 전라도 보성에서 감행한 군자금수합 사건이 탄로나 5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¹²⁵⁾ 한훈을 비롯한 주요단원들이 피체되고 김상옥이 망명함에 따라 광복단결사대의 조직은 와해되고 말았다. 이로써 1913년 豊基에서 태생하여 光復會로 확대되고 光復團決死隊로 계승되어온 大韓光復團의 항일투쟁도 일단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IV. 大韓光復團 組織構成의 特質

앞 장에서 大韓光復團의 결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1913년 풍기에서 성립된 대한광복단은 1915년 大韓光復會로 확대 발전되었다. 1918년 조직이 노출되었으나 잔존단원들은 광복단결사대라는 후계조직을 통해 투쟁을 계승하였다. 요컨대 단계적 부침을 겪으면서도 대한광복단의 조직과 활동은 1910년대 전 기간을 통해 지속되었던 것이다. 무단통치하에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가 이같이 끈질긴 생명력과 투쟁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단체가 지니고 있었던 조직 구성의 특질에서 그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성 당시의 대한광복단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진 조직체였다.

첫째 단원구성이 철저히 소수정예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光復團略史’에 실명이 등장하는 최초단원은 총 10명이다¹²⁶⁾. 여기에 梁濟安 父子와 金鳳樵, 鄭星山을 포함시켜도 1913년의 구성원은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단이 성장하여 광복회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단원 수는 급증하게 되지만 풍기의 초기조직이 10여명의 소수로 이루어 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특히 ‘略史’에 등장하는 10여명의 단원들이 향후 대한광복단 광복회의 항일투쟁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124) 金昌洙, 「김상옥의 종로서 및 효계동 의거」, 『신동아』, (1969, 7 월호), 『역사와 민족』(삼문 1994), 제수록

125) 동아일보, 1922. 11. 12.

126) 光復團中央總本部, 『光復團略史』(1946), 3 쪽

과 임무는 量的인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대한광복단은 광복회로 발전된 후 八道에 지부를 설치하고 군대식 조직체계를 갖춘 혁명적 항일단체로 성장하였다. 광복회는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무장군대를 양성하고 적기가 오면 일제와 ‘殲滅戰’을 단행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¹²⁷⁾ 그러나 당시와 오늘날 까지 항일무장단체로서 광복회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활동은 1916년 5월에서 1918년 1월 사이 三南지방에서 추진된 일련의 친일과 처단작업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의거는 거사의 시점과 대담성, 파급효과의 면에서 당시의 식민세력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거사들의 집행과정을 보면 대부분 풍기의 초기단원들이 그 실행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1917년 漆谷에서의 張承遠처단은 채기중의 인솔하에 庾昌淳, 姜順必, 林世圭 등이 참여하였고 처단을 직접 결행한 것은 임세규를 제외한 풍기의 초기 구성원 3명이었다.¹²⁸⁾ 이보다 앞선 1916년 5월 전남 보성, 박곡에서 韓焄, 金相玉, 柳璋烈 등 역시 초기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헌병분견소를 습격하고 친일지주를 처단하였다.¹²⁹⁾ 지휘체계와 거행시점에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이 역시 대한광복회 차원에서 추진된 의열투쟁으로 이해된다.¹³⁰⁾ 마지막 1918년 1월 아산 도고의 친일 면장 朴容夏 처단에는 풍기의 단원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복회 충청지부를 결성하고 이 거사를 직접 지휘한 金漢鍾은 채기중의 인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예산이 고향인 그가 충청출신 단원(한훈, 유창순, 정운기) 들을 매개로 풍기에서 채기중과 동지적 유대를 맺었고, 그 인연으로 1917년 충청지부장에 임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¹³¹⁾ 정식 입단은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초기조직과 연계된 인물임이 분명하다.

결국 경상, 충청, 전라에서 결행된 대한광복회의 대표적 의열투쟁은 모두 채기중을 위시한 풍기의 초기단원 및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주도하였던 것이다. 여기

127) 『光復會復活趣旨及沿革』(1945).

128)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180쪽

129) 東亞日報, (1922.11.12)

130) 金希柱, 「大韓光復團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史學科 博士論文, (2002), 116~122쪽.

131)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 『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知識産業社, 1989), 272쪽.

에 전술한 한훈, 김상옥의 ‘미의원단방한의가 까지 감안한다면 일제하 광복회가 추진한 항일운동의 전면에 이들 단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항후의 투쟁에서 초기 구성원들이 基幹의 역할을 담당했음이 확인된다.

초기조직이 지녔던 또 하나의 특징으로 同시대 여타의 비밀결사에서 발견되는 외곽조직, 즉 外皮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910년대의 비밀결사는 團의 정체를 은폐시키고 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표면단체나 전위조직을 운용하였다. 달성친목회를 표면으로 하였던 조선국권회복단을 비롯해 기성불단, 조선산직장려회, 단천자립단, 송죽회 등 대부분의 결사들이 학교나 종교 혹은 직업적 연결고리와 같은 외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외피는 단원의 결속을 강화하고 조직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노출되었을 경우 여파가 크다는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大韓光復團은 구성원의 사회적 성격과 지역의 여건상 뚜렷한 외곽조직을 지니기 어려웠다. 소수로 구성된 초기단원들의 사회적 여건과 외피가 없었다는 구조적 특징은 이 단체가 일제의 감시와 주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1918년 광복회 조직이 발각되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풍기의 결성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³²⁾ 초기조직이 지녔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상대적으로 이 단체가 단명에 그치지 않고 대한광복회로 확대, 발전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었던 것이다.

초기조직의 노선과 인적기반을 토대로 대한광복단은 1915년 광복회로 발전되어 확대조직의 활동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단원수는 1915년 당시 약 80여명으로 증가되었고 그 성향은 의병, 지사 집단에서 계몽운동, 비밀결사, 구한국 무관 출신에 이르는 汎항일세력으로 다변화 되었다. 확대조직의 특징에 관해서는 그것이 국내 전역에 지부를 설치한 전국적 규모이며 단원간에 직급과 위계를 갖춘 군대식 편제를 적용하였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었다. 광복회가 군대식 조직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은 總司令, 副司令 등의 군사직명을 사용하였고¹³³⁾ 지도부와 단원사이에 명령계통이 작동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밀결사인 광복회가 그와 같은 편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원수의 급증에 따른 조직정비의 필요성과 함께 1916

132) 金希柱, 앞의 글, 146쪽

133) 趙東杰, 「대한광복회 연구」, 앞의 책 282쪽

년 입단한 金佐鎭, 盧伯麟, 尹致晟, 申鉉大 등 舊한국 장교출신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¹³⁴⁾ 이들은 광복회 구성원 중 유일하게 근대군사교육을 이수한 정규사관출신이었다.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이들의 영입으로 광복회는 조직체계뿐 아니라 활동목표와 전략에 있어서도 한 단계 전진을 보게 되었다. 이른바 '7 대투쟁방략'과 같은 장기적인 투쟁방침도 이 시기에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확대조직의 발전이 단순히 외형적인 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히 다원적인 구조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1916년 완비된 광복회의 국내지부와 단위조직들이 모두 총사령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수직적인 명령계통에 의해 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부들은 나름의 독자적인 활동체계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1916년 한훈, 김상옥이 전라도에서 추진한 무장투쟁을 들 수 있다.

1916년 5월 한훈, 김상옥, 유장렬, 곽경택 등의 단원들이 보성, 벌교의 친일부호 양재학, 서도현을 처단하고 현병분견소를 습격하여 무기를 수습하였다.¹³⁵⁾ 한훈은 이듬해인 1917년 1월 서도현의 당질 서인선을 납치하여 군산, 대전, 평양으로 75일간 끌고 다니다 군자금 5만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리에서 그를 가족에게 인계하였다.¹³⁶⁾ 그런데 全南에서의 이러한 의열투쟁의 행동주체를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광복회 관련 일체의 관헌문서나 재판기록에 이 사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 이미 한훈이 광복회 사업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1920년 光復會決死隊(光復團決死隊의 誤記 - 필자주)를 조직하였고 해방 후 光復會(光復團의 誤記 - 필자주)를 재건한 점을 들어 광복회의 의협투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¹³⁷⁾ 그리고 한훈의 행적과 함께 후일 대한광복회 전남지부장이 되는 李秉昊가 가담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 역시 대한광복회 차원의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¹³⁸⁾ 그리하여 이는 경북 칠

134) 노백린, 윤치성 신현대는 일본육사를 수학한 舊한국 장교 출신들로 김좌진은 경술국치 이전부터 계동 윤치성 자택에서 이들과 회합하며 군사전략을 연구하였다. 박환 「북만주에서의 김좌진의 항일독립운동」 청산리전투 80주년 기념심포지움 발표문(2000), 41 쪽

135) 金厚卿, 申載洪編 『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 韓國民族運動研究出版部(1971), 1095~1096 쪽

136) 東亞日報, 1922.11.12.

137) 趙東杰, 앞의 책, 301 쪽

138) 張錫興,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노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집(2001), 51 쪽

곡, 충남 아산의 친일지주처단과 함께 三南에서 추진된 광복회의 대표적 항일의열 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의 이 거사가 결행시점과 과정에서 충청 경상지부와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거행단계에 지도부가 개입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漆谷, 牙山의 처단은 대상의 설정에서 집행에 이르기 까지 지도부와 지부조직사이의 일원적인 명령계통이 작동되었다. 지도부에 의해 처단대상이 결정되면 지부가 치밀한 계획하에 행동대원을 파견하여 실행에 옮기는 전형적인 조직차원의 거사였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이러한 지휘계통이 가동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독립의군부 출신의 한훈, 유장렬과 김제가 고향인 광경렬 등이 가담한 점으로 미루어 광복회내의 호남인맥들이 자신들의 정보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투쟁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거행시점이 앞선다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광복회 조직은 이른바 ‘대구권총사간’으로 구축되었던 박상진이 출감하는 1917년 7월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인다. 그의 복귀와 동시에 충청지부가 결성되었고 연이어 전라, 강원지부가 조직되었다. 운동형태도 기존의 광산잠입이나 세금마차 습격에서 反민족세력을 상대한 직접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장승원, 박용하 처단은 이러한 조직망의 토대위에 추진 가능하였던 것이다.¹³⁹⁾ 여기에 비해 보성, 벌교의 활동은 지부조직이 완비되기 전인 1916년 5월에 선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훈은 박상진이 구속 중인 1917년 1월 벌교 부호 서인선을 납치하여 군자금을 수령하는 대담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18년 광복회 조직이 발각되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들 투쟁사실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자체는 물론 한훈, 김상옥 등 단원의 존재 조차 일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보성, 벌교의 무장투쟁은 1921년 이른바 ‘미의원단방한사건’으로 한훈이 피체된 후 전모가 드러났다. 그 이유는 언급한 대로 이 투쟁이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단원들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추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례는 다음에 제시할 황해지부의 활동에서도 발견된다.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황해지부는 1916년 李觀求의 주도하에 ‘朝鮮總督暗殺’을 모의하였다.¹⁴⁰⁾ 以南조직과 같은 의열투쟁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거사는 황

139) 拙稿, 「일제하 체기중의 항일투쟁과 그 성격」, 『순국선열체기중의사학술회의 발표문』, 상주문화원(2003. 7), 43쪽.

해지부가 계획한 최대의 무장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거사의 모의과정에서도 광복회 지도부의 지시나 개입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1916년은 전국조직망이 구축되기 전으로 총독암살과 같은 대규모의 거사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었다. 박상진이 권총 2정을 인계한 것¹⁴¹⁾ 외에 지도부가 관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일제의 관헌자료뿐 아니라 광복 후 작성된 이관구의 기록에도 총독암살계획에서 광복회의 역할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¹⁴²⁾ 이 거사 역시 지부차원에서 시도되었고 광복회 지도부는 무기조달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활동만 담당함으로써 판단된다.

황해지부는 단원수가 20명이 넘었고 長春, 無順을 중심으로 자금모집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국권회복 취지서를 제작, 배포하는 등 타지부에 비해 손색없는 투쟁면모를 보이고 있다¹⁴³⁾. 그러나 1918년 1월 충청지부의 발각을 시작으로 단원체포가 이어지고 광복회 조직이 붕괴되는 시점에도 일제는 황해지부의 존재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황해지부는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것이 아니라 1918년 6월 海州郡 彌栗面에 거주하는 趙夏東의 투서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 조직과 광복회의 관계에 주목한 일제는 이후 총독암살계획에서 광복회의 역할을 여러 각도에서 수사하였으나 관련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⁴⁾ 요컨대 전라조직과 함께 황해지부 역시 독자적인 활동체계와 영역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광복단의 주요 거점이자 자금창구 역할을 하였던 大同商店의 경우에도 찾을 수 있다.

‘(대동상점에) 거금을 소지하고 만주로부터 권총과 탄환을 구입하여 대원들의 무기를 후원하였다’라는 梁漢緯의 기록에¹⁴⁵⁾ 나타나 듯 대동상점은 영주, 풍기, 순흥의 자산가들이 출자한 표면상 잡화상이나 사실상 대한광복단의 자금원인 동시에 활동거점이었다. 대동상점은 자체조달 혹은 영주의 지역유지들에게 義捐을 구하는 형태로 활동자금을 모집하였다. 朴濟璿, 權寧陸, 李教憲 등 경영자들은 상업활동을

140) 姜德相, 『現代史資料』 25, 56쪽

141)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 2, 483~484쪽

142) 李觀求, 『義勇實記』

143) 姜德相, 앞의 책 56쪽

144) 國史編纂委員會 編, 『한국독립운동사』 2, 485쪽

145) 梁漢緯, 『梁碧濤公濟安實記』 필사본

통해 광복단의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1917년 12월에는 박상진과 함께 吉林督軍의 협조를 받아 만주에 기지건립을 모의하기도 하였다.¹⁴⁶⁾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기지창건이 대한광복단의 핵심 투쟁방략의 하나였음을 감안할 때 대동상점의 운영자들이 이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처럼 주요 활동거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제는 대동상점과 대한광복단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대동상점은 광복회사건의 수사와는 무관한 榮州 憲兵分遣所에 의해 1918년 정체가 발각되었다. 상점의 존속기간이 대한광복단이 광복회로 개칭하고 가장 치열하게 활동한 1915년부터 1918년까지였음에도 광복회 사건을 다룬 公州地法과 大邱覆審法院의 판결문에는 대동상점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식민지하 항일독립운동을 사례별로 기록한 ‘高等警察要史’에는 ‘光復會’와 ‘大同商店’을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관구의 황해도 조직이 지부로서 활동하였다면 대동상점은 자금을 모집하고 무기를 조달하였으며 해외기지건설에도 관여하는 등 이면에서 조직을 견인해간 배후 거점이었다. 양자는 비슷한 시기에 발각되었으나 일제는 수사과정에서 團과 이들의 연결고리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활동 자체가 엄폐되었던 전라지부의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1918년 지도부의 검거로 핵심세력이 파괴되는 단계에서도 대한광복단의 세부조직은 그 전모가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통해 경상, 충청지부를 제외한 여타의 단위조직들은 지도부와의 관계 외에도 고유한 활동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상당부분의 무장투쟁과 군자금 수합활동이 그러한 영역 내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즉 1915년 이후 확대, 발전되었던 대한광복단의 국내 지부와 세부 조직체들은 단선적인 지휘계통이 아닌 중층적인 구조 하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층성은 대한광복단 조직구성의 가장 큰 특징인 동시에 이 단체의 인맥과 노선이 일시에 파괴되지 않고 1912년대와 3.1운동 이후 까지 계승될 수 있었던 기반이기도 하다. 지부와 하부조직들은 수직적 명령이 아닌 나름의 판단과

146) 慶尙北道 警察部, 『高等警察要史』(1934), 264쪽.

지역조건에 따라 각기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때문에 일제는 수사과정에서 이들과 광복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종의 권한분산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활동체계는, 여타의 국내 비밀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측면으로,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대한광복단 확대조직이 지녔던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었다 하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大韓光復團의 결성과 변천, 그리고 조직구성의 특질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대강을 요약하고 그러한 조직의 변천과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대한광복단은 1913년 경북 풍기에서 蔡基中이 10명의 단원을 규합하여 최초 결성하였다. 전투지향적인 소수의 단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뚜렷한 외피를 지니지 않았다는 특징과 소백산 아래 풍기의 환경적 이점까지 더해 전형적인 비밀결사의 형태로 출범할 수 있었다. 1913년 초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10명의 단원들은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의병출신과 의병경력은 없지만 독립의 열망을 소유한 채 투쟁의 적기를 모색하고 있던 지식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은 외지에서 유입된 인사들로 사회적 기반이나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상태에서 풍기로 집결하였고 채기중에 의해 비밀결사의 단원으로 재편되었다. 결성과 함께 무기를 구입하여 무장투쟁의 노선을 분명히 하였고 그러한 투쟁노선에 공감한 영남의 항일세력들이 추가 입단함으로써 조직은 세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양제안, 황상규, 김대지 이각으로 이어지는 단원영입은 1915년 朴尙鎭을 중심으로 한 朝鮮國權恢復團의 강경파들이 가담하면서 정점을 이루게 된다. 동년 7월 대한광복단은 광복회로 개칭하여 확대조직의 활동기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16년 金佐鎭 盧伯麟으로 대표되는 정규사관 출신들까지 참여함으로써 광복회는 이른바 군대식 조직체계를 갖추고 국내지부와 만주에 거점을 설치한 혁명적 항일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장기적인 투쟁방략이 설정되었고 단원수가 급증하여 총사령과 지부사이의 명령계통이 작동되는 등 1910년대 국내의 가장 대표적인 항일단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세금수송마차와 일인광산을 잠입, 습격하거나 친일지주를 처단하는 등 식민세력의 인적, 물적 기초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들과의 정면투쟁을 시도하였다. 양상과 성과를 놓고 볼 때 이 확대조직의 활동이 대한광복단 전체 무장투쟁에서 가장 뚜렷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총사령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지휘체계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시각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휘체통에 의해 투쟁이 진행된 예는 경상, 충청 조직을 제외하고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 1916년 보성, 벌교의 의열투쟁, 황해지부의 총독암살모의, 대동상점의 운영 등 광복회의 항일운동으로 알려진 이상의 사례들에 지도부가 개입한 증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광복회 차원으로 규정한다 해도 상당부분의 활동들이 개별조직과 세력들의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 하에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확대조직은 일원적 편제가 아닌 다원적 구조, 즉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수직적 명령체계 외에도 수평적인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져 나름의 활동체계가 갖추어졌으며 상당부분의 투쟁이 그러한 영역 내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조직구성의 이러한 특징은 대한광복단이 1918년의 위기에서도 전면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일정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일제는 이관구의 '조선총독암살모의'와 광복회의 관계에 심증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전남에서 한훈, 김상옥의 활동은 사실 자체가 은폐되었고 대동상점 역시 광복회의 거점이었다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보존된 세력 중 한훈, 김상옥 등 풍기의 초기단원들은 국내에서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하여 대한광복단의 조직과 활동을 재기하였다. 우재룡을 비롯한 일부는 만주에서 籌備團을 조직하여 역시 투쟁맥락을 계승하였다. 확대조직의 구성이 그와 같이 다원적인 형태를 취한 것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국내의 비밀결사가 무단통치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광복단은 결성 후 단계적 부침을 겪으면서도 1910년대 국내항일무장투쟁을 선도하였다.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단명은 개칭되었고 단원의 이합도 빈번하였지만 결성 당시의 목표와 방향은 단절 없이 추진되었다.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후계조직인 광복단결사대가 시도하였던 1920년 '미의원단방한의거'는 3.1 운동 이후 국내

에서 계획된 최대의 무장독립투쟁이었다. 초기조직이 가졌던 선명한 투쟁노선과 확대조직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조직구성의 특질이야말로 이 단체가 일제하 국내의 대표적인 항일무장결사로 존재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운동의 가시적 성과와 더불어 여타의 결사에서 찾을 수 없는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사에서 大韓光復團의 활동이 지니는 중요한 일면으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7, 8, 9, 1989.
-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4, 5, 1988.
-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資料集』 11, 1976.
- 光復團中央總本部, 『光復團略史』, 1946.
- 梁漢緯, 『梁碧濤公濟安實記』 (필사본)
- 姜德相, 『현대사자료 25 : 조선』 1 東京: 1966.
- 金喜坤 編, 『朴相鎭資料集』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2 과천, 1968.
- 尹普鉉, 『嶺南出身獨立運動略傳』, 光復先烈追慕會, 1961.
- 金相玉烈士紀念事業協會, 『金相玉烈士鬪爭史』, 1949.
- 金相玉, 羅錫疇烈士紀念事業會, 『金相玉, 羅錫疇烈士抗日實錄』, 1986.
- 채광식, 『채기중선생전기』, 소몽선생승모회, 2001.
-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독립운동사 7권 : 의열투쟁사』, 1979.
- 姜大敏, 「一峰 金大池의 抗日獨立運動」 『釜大史學』 제19집 1995.
- 金昌洙, 「大韓光復團의 成立과 活動」 『金廷鶴博士頌壽紀念論叢』 1999.
- 金希柱, 「素夢 蔡基中の 抗日獨立運動」 『東國史學』 第38輯, 東國史學會, 2002.
- 朴成壽, 「大韓光復團의 역사적 위상」 『대한광복단학술회의 발표문』, 2002.
- 박 환, 「대한광복회에 관한 새로운 사료 의용실기」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1.
- 吳世昌, 「碧濤 梁濟安의 抗日救國運動」 『尹炳夷教授華甲紀念論叢』, 1990.
- 劉準基, 「1910年代 기독교인의 抗日運動의 一樣相」 『論文集』 제 10집 總神大, 1991.

- 張錫興,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노선」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趙東杰, 「大韓光復會의 結成과 그 先行組織」 『韓國學論叢』 5 國民大 1982.
趙東杰, 「大韓光復會 研究」 『韓國史研究』 42, 1983.
趙竣熙, 「大韓光復會 平安道 支部長 敬齊 趙賢均」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 투고일 : 2003. 2. 26

● 심사완료일 : 2004. 5. 14

● 주제어(keyword) : 대한광복단(Daehan-kwangbokdan),
조선국권회복단(Chosun-kookkwonhoibokdan), 채기중(Chae Ki Joong)